sbs

매거진 5

SBS Magazine·1994

주말「SBS 8 뉴스」
앵커 이승열

어린이를 바르게

sbs 서울방송 Ch6 AM792

커버스토리

뉴스란 본질적으로 '선택'의 문제이다. 이 세상 도처에서 날마다 숱하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모두 다 담아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뉴스를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다. 바로 기자들인 것이다. 기자들의 사건을 다루는 균형감각, 세상을 보는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시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말 「SBS 8 뉴스」 앵커 이승열

균형잡힌 시선, 부드러운 성품의 신세대 앵커

그렇게 선택된 뉴스의 물꼬를 트고 물길을 조정하며 닻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가 앵커일 것이다. 무게중심이 기자라는 것에서 앵커쪽으로 옮겨진지 벌써 1년, 이승열은 예전보다 더욱 자주 깊이 선택의 문제와 불편부당의 문제 같은 걸 생각하곤 한다.

그는 자신이 진행하는 주말「SBS 8 뉴스」가 뉴스 프로그램으로서는 대단히 취약한 시간대에 있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활지침 비슷하게 삼고 있는 사람답게 숫자 따위에는 그리 연연치 않으려 한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뉴스란 볼 사람은 꼭 보게 마련이라는 생각도 그의 그런 자세를 도운다.

열 명 중 여덟 명쯤이 날마다 TV 뉴스를 본다고 치자. 주말엔 좀 줄어들어 다섯 명이라고 치고, 상대 방송사들에서 주말연속극이 방송되는 시간대이니 만큼 토, 일

요일의「SBS 8 뉴스」를 보는 이가 열 명에 두 명밖에 안된다고 쳐도, 그 두 명의 시선이 그에게는 백 명의 눈길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

주말의 메인뉴스 앵커가 된 것은 그로서도 참으로 느닷없이 당한 일이었다. 어느 날 출입처에 나갔다 돌아와보니 오디션을 받아보라는 연락이 와 있었다. 얼떨결에 오디션에 응했고 그 이틀 후 주말뉴스 앵커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10년짜리 중견 기자로서 차근차근 자신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던 그로서는 사실 뛰어난 수직이동을 한 셈이다.

"원래 내성적이고 수줍기까지 해서 어릴 적부터 발표력 같은 것하곤 인연이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직업을 택했는지나 스스로도 불가사의하다"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기자가 되는 조건이 그것만이 다는 아닐진대, 그가 기자로서 인정받고 급기야 주말의 메인뉴스 앵커까지 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기자라는 직업이 갖춰야 할 최선의 덕목, 즉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이라는 면으로 볼 때 그는 돋보이는 점이 있는 인물이다. 편견이나 왜곡은 그 사회를 병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의 역량을 감소시키고 말뿐이라는 생각을 그는 늘 한다.

그런 생각은 그가 직접 작성하는 앵커 멘트에 완곡하게 스며들어 있다. 되도록이면 쉬운 말로 풀어서 전달하는 그의 멘트는 결코 단정적이거나 위압적이지 않다. 다만 함께 생각해볼 것을 권유하는 듯한, 은유의 화법을 그는 즐겨 쓴다.

58년생 개띠이니 기자로선 한창 중추의 역할을 할 나이, 그러나 앵커라는 자리에 앉기는 아직은 '어리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애매한 때에 그는 서있다.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문화방송 보도국에 입사한 것이 82년이고 서울방송 개국 초기에 몸을 옮겨 SBS기자로 변모한 때가 91년이니 요즘 유행어로 치자면 그는 앵커 중에서도 '신세대 앵커'에 속하는 셈이다.

신세대 앵커답게 그는 기존의 노회한 앵커군(群)에 비해서 TV에 비치는 외모부터가 젊고 말쑥하다. 게다가 화면 밖에서 만난 그의 얼굴은 실제 나이인 서른일곱살보다 족히 너댓살은 더 아래로 보인다.

남편과 달리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을 지닌 썩 괜찮은 아내와 다섯 살, 두 살 난 두 아이를 거느린 중고참 가장인데도 아직도 가끔 총각 취급을 받기도 하는 자신의 동안(童顔)에 대해서 그러나 그는 결코 취약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 젊은 얼굴에 뉴스에 대한 젊은 시각과 미래에 대한 화연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담아

내보낸다.

뉴스란 세대를 막론하고 보는 프로그램이고, 세대차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젊은 얼굴과 젊은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자칫하면 가벼워 보일지도 모른다는 점만 경계한다면 환영할 만한 생각이거니와, 그의 이지적이고 조금은 차갑게도 보이는 인상은 가벼움 따위와는 애당초 거리가 멀다.

5월이면 데스크에 앉아 카메라를 보며 뉴스를 진행하기 시작한지 딱 1년이 된다. 그러나 앵커가 됐다는 무게감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몫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에 아직도 긴장의 고삐를 조금도 늦출 틈이 없다. 얼굴에 로션 바르는 것을 남자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믿어왔던 보수적인 그가 방송을 위해 얼굴을 다듬고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양복과 넥타이 색깔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그 긴장에 한 몫을 더하는 요소일 것이다. 그렇지만 '앵커 이승열'을 위해 '인간 이승열'은 꽤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있다.

마주 앉아있는 동안 그는 체질적으로 신중하고 냉철한 사람이며,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자연스레 느끼게 한다. 내심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좋은 냄새와 좋은 색깔을 가진 앵커로 기억되기를 원할지라도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하루 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듯싶다.

그것보다는 탄탄한 지적 소양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일이 그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 가장 차갑고 냉정한 보도의 세계일지라도 결국은 우리 모두의 보다 양질의 삶을 위해 봉사하는 일일 테니까 말이다. S

글/윤종영·자유기고가
사진/서창식

'94 SBS 신입사원 공개 모집 전형 방법 사전 안내

서울방송은 94년부터 신입사원 공개 모집 전형 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합니다.
새로운 전형 방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별도의 영어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TOEFL 또는 TOEIC 점수 제출로 대체하며, 둘째 종래의 상식과목을 종합교양으로 확대·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사고와 도전적인 열정으로 21세기 밝은 미래를 서울방송과 함께 열어갈 방송지망생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응시준비에 차질없기를 바랍니다.

■ **모집 예정 시기**:1994년 하반기

■ **필기전형 과목**

1. 영어:TOEFL 또는 TOEIC 성적증명서 제출(응시일 기준 2년 이내)
2. 종합교양: 국어(한문, 고문),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신문방송학, 시사, 기타 일반 교양
3. 논술: 주어진 제목하에서 논리력, 창의력, 문장력을 평가

■ **참고사항**

1. 구체적인 모집요강 등은 추후 공개 모집시 SBS 방송을 통해 공고 예정
2. 제2외국어(일본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특기자 우대
   단, 아래 측정시험의 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제출
   (응시일 기준 2년 이내)

- 일본어:일본문화원 주관 일본어능력시험 1급 또는 시사영어사 주관 JPT 시험 850점 이상
- 독일어:독일문화원 주관 ZMF 이상
- 불어:프랑스 외무성 주관 알리앙스 프랑세제 대행 DELF A5 이상
- 중국어:중국대사관 주관 한어수평능력고시(HSK) 중급 이상

3. 문의처:서울방송 인사부(전화 02-369-1121~1126)

가정의 달 특집

푸르는 날, 오월의 풍성한 선물

- 가정에서 텔레비전의 역할
- 가정의 달에 보는 프로그램

  어린이날 특집 다큐멘터리 「꼴찌가 없는 교실」

  2부작 드라마 「따뜻한 손」
- 가정의 달에 만난 행사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어린이날 특집 「푸른 5월 밝은 세상」

  제4회 SBS 고부노래자랑

  제3회 SBS 라디엔티어링 대회

  제3회 전국 가족사진콘테스트

SBS매거진·1994년 5월호·통권 30호·1994년 5월 1일 발행·
월간, 비매품·1991년 11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라-5316·
발행처/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우편번호 150-777, 대표전화 786-0792, 369-1114·
인쇄인/김현식·인쇄처/주식회사 동아출판사, 대표전화 866-8800·
사진식자/광일사식, 전화 735-3665·편집처/케이컴, 전화 713-7143

가정의 달 특집

SBS-TV 봄철 프로그램 개편

'94 SBS-TV 봄철 프로그램 개편

「맞수 TV 최강전」

■ 발행·편집인/윤혁기
■ 주간/김우광
■ 부주간/손규환
■ 기획/남지혜·신선희
■ 사진/서창식·장문경·신동준

SBS 문화살롱

프로듀서의 세계 [3] 이남기

사람 사람들 [13] 서득원

「마음은 언제나 청춘」의 '가정 탐방'

가정에서 텔레비전의 역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해의 장

유세경·편성국 편성부 선임연구원

아주 어렸을 때 김일의 프로레슬링 중계가 있을 때면, 동네 사람들이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모여 앉아 같이 프로레슬링 경기를 시청하던 기억이 있다. 프로레슬링이나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중계되는 날이면 텔레비전 안테나가 설치된 집은 으레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고, 동네 사람들은 경기를 시청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웃간의 화목도 다지고 즉석에서 동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동네 자치제(?)마당이 되곤 했다. 또한 텔레비전 안테나가 설치된 집은 항상 밤손님의 표적이 되었고, 얼마 후 등장한 TV 실내 안테나는 이런 저런 이유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동네의 공유물로 여겨졌던 텔레비전이 70년대에 들어서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 증가로 한 가정에 한 대의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공유물로 변모하게 되었다. 주로 텔레비전이 놓여진 안방이나 거실은 저녁식사 후 온가족이 모여 앉아 과일이나 차를 드는 모임의 장소가 되었고, 가족간에는 텔레비전 채널 선택권을 놓고 곧잘 가벼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물론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선택권이 가장 존중되고, 오빠 엄마의 순으로 선택권이 부여되기는 하지만)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를 하거나 방송사의 거사적인(?)프로그램, 예를 들면 「가요

점점 개인화 되어가는 오늘날, 텔레비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생각을 그려줌으로써 부모와 자녀 혹은 부부 간의 이해의 폭을 좁히는데 큰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텔레비전이 바람직한 가족 관계와 가정의 참 의미를 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문화적 공론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청백전」, 「올스타 쇼」 등이 방송되는 날은 온가족이 시간을 맞추어 일찍 귀가하고 어머니는 일찍 귀가하는 가족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마련했다. 저녁을 마친 가족들은 일찌감치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2시간씩이나 방송되는 선발 대회에서 채널을 고정시키고 누가 선발된 것인가를 놓고 내기를 벌이기도 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온가족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화 된 생활 패턴이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은 텔레비전 수상기의 대량 보급을 가능하게 했고, VTR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기기들을 보급시키면서 가정의 공유물로서의 TV 수상기의 위상을 위협하였다. 가구당 평균 2대의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90년대에는 TV의 위상은 가정의 공유물에서 개인의 전유물로 변모되었고, 우리의 시청 패턴도 크게 변화되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가정의 평균 TV 보유 대수는 1.8대이며, VTR은 평균 0.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는 안방에서, 자녀들은 자신의 방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혼자서 시청한다. 또한 리모트 콘트롤의 등장은 수시로 채널을 바꾸면서 원하는 장면만을 골라서 시청하는 개인 시청을 극대화시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텔레비전 시청을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는 현대인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온가족이 모여 앉아 하나의 채널에 고정시키고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쯤으로 남아있는 듯하다.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TV 수상기를 통

일러스트·정주연

해 각자가 선호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요즈음의 일반적인 풍경이다. 이러한 풍경을 커뮤니케이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전문화 세분화 되어가는 시청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전문화 세분화 되어가는 시청 형태는 단지 TV 수상기 보급의 증대에만 기인하지는 않는다. 핵가족화, 전문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 구조와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 주변 환경은 '전문화 세분화 되어가는 시청 형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어 놓았고, 방송사는 시청자의 새로운 시청 패턴에 부합하는 편성 제작 전략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의 비평가들은 이러한 TV 시청 형태와 편성은 세대간,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개인적인 이익과 생각을 중시 여기는 현대인의 가치관을 더욱 가속화 시킴으로써, TV가 화합과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TV는 현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오락을 제공하고, 환경 감시의 기능을 하는 등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텔레비전은 시대의 사회상 문화상을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공론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청자들 역시 TV에 소요하는

시간이 다른 매체에 비해 월등히 많다. 조사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평균 3.5시간이고 주말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5시간이다. 이는 아직도 텔레비전은 대중에게 매우 중요한 여홍의 수단이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텔레비전이 '가정, 가족'이라는 구성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매체보다 크다. 이제 TV가 온가족을 같은 시간에 한자리에 묶어놓지는 않지만, 메시지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고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게 한다. 즉 개인화 되어가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텔레비전은 프로그램 혹은 기타의 메시지(캠페인, 광고, 이벤트 행사 등)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생각을 그려줌으로써 부모, 자녀 간 혹은 부부 간의 이해를 돕는다.

이상적인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이미지를 미국인에게 제시한 인기 시트콤 「코스비 쇼(Bill Cosby Show)」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드라마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며(드라마의 경우 비윤리적인 소재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들 드라마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가정의 소중함' '휴미니티의 승리' 등이다) 세대상이나 계층상을 반영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돕고 가정을 한 테두리에 묶어놓는 역할을 한다. 시청자들은 개별적인 시청을 통해 가정과 사랑, 화합이라는 공통의 가치규범을 인식하고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현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핵심은 '가정'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이 바람직한 가정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은 첫째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을 일깨워 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둘째 개별화 되어가는 가족 구성원을 한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도록 가족 대상의 시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셋째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은 온가족이 시청하기에 적합한 프라임타임대나 주말 시간대에 편성해야 한다. 넷째 표현이나 어휘 사용, 상황 설정에 있어서 가족 간의 바람직한 예의범절, 규범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며, 다섯째 시청자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평범한 가정을 모델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여섯째 시청자와의 활발한 의견 교환의 통로를 구축하여 텔레비전이 바람직한 가정상을 만드는 데 시청자의 참여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S

어린이날 특집 다큐멘터리「꼴찌가 없는 교실」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현장

연출/손명덕, 안순범

촬영/정기현

방송/5월 5일 아침 10~11시

대전 대덕국민학교. 대덕 연구 단지 내에 자리잡고 있는 이 국민학교는 뒷산에 진달래 개나리가 어우러져 있고 새소리도 들리는 그런 평범한 시골학교이다. 서울의 시설이 뛰어난 여느 국민학교 보다 이 학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아이들의 성적이 상한선에서 평준화 되어 있다는 데 있다. 즉 '공부 잘하는 우수 학교'인 셈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자녀가 여러모로 잘됐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이고 이런 기대는 포기가 쉽지 않다. 대덕국민학교 학부모의 '치마바람'도 유난하다. 그

대덕국민학교의 학부모들은 또다른 선생님이다. 학교 청소부터 취미나 특기 활동을 함께 지도하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해답을 제시한다.

러나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극도의 이기심에서 학교로 돈봉투를 나르거나 자녀의 성장과 관계없이 언제나 요람 속의 아이로 만들어 마마보이가 되게 하는 과보호와는 다르다.

대덕국민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일은 학교 청소나 도서실 관리에서부터 컴퓨터, 영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학부모들이 전문성을 띤 취미 및 특기 활동을 지도하는 클럽은 아이들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 이날은 학부모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서로의 수업 방법을 토의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학교일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다. 이 점이 과열 경쟁이나 아이들의 소외감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있다.

이런 예는 병설 유치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이들의 간식이나 교재 제작, 환경 정리, 실외놀이뿐 아니라 미술 공부 등 전문성을 요하는 수업까지 자원하는 학부모의 몫이 되기도 한다. 또 바자회를 통해 헌옷이나 안쓰는 물건 등을 서로 교환하며 아이들에게 검소한 생활을 가르치기도 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엄마, 화단을 가꾸는 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생활이야말로 어린이에게 올바른 행동과 의식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교육인 셈이다.

바자회 수익금으로 학교를 돕기도 한다.

우리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을, 그들이 그 후의 생애에서 가질 법한 사회적 명성 또는 재산의 양과 대체로 비례하는 하나의 재산으로 소유하는 훈련에 힘쓰고 있다. 교육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어린이들은 교사로부터 지식을 습득한다면 부모로부터는 살아가는 정도(正道)를 배운다. 학부모들의 교육 현장 참여는 교사, 학부모, 어린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런 학부모의 올바른 관심 표현과 행동은 결국 어린이들의 바르고 건강한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난다.

SBS가 '94 SBS 캠페인 '어린이를 바르게'의 일환으로 제작한 「꼴찌가 없는 교실」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하는 교육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한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교육은 지금의 세대가 장래의 세대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부채이다. 일정한 틀에 박아넣으려는 교육은 유익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허용될 수도 없는 것이다.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어린이 헌장」을 다시금 음미하게 하는 5월이다. S

글/남지혜

사진/정분경

취미활동을 지도하는 아버지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일도 이 학교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박사이자, 우리별 1호 개발에 참여한 박동조 교수 또한 학부모 일일교사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친다.

2부작 드라마 「따뜻한 손」

비로소 깨달은 아버지의 참사랑

극본/박리미

연출/손홍조

방송/5월 5일 밤 9시 55분~11시 55분

부모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치른 고통이 마음 속에 너무나 생생하므로 저도 모르게 그만 기대해도 좋은 것 이상의 대가를 자녀에게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내 자녀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가장 위태로운 생각이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정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다른 어떤 애정보다도 믿을 수 있기 때문일 성싶다.

박리미 극본, 손홍조 연출로 만들어지는 가정의 달 특집극 「따뜻한 손」은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이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이국에서의 생활고에 지쳐 자식에게 연락조차 못 전했던 아버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잡초처럼 자란 아들, 그리고 심장병을 앓아 부모의 과보호 속에 자라는 손자, 이 3대가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게 한다.

기사 식당 주인인 지헌(유인촌 분)은 아무말이나 툭툭 내뱉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편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다정하고 완벽한 아버지이다. 그에게는 고아로 자라 남편과 자식, 그리고 일밖에 모르는 성실한 아내 희정(김해숙 분)과, 부모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아는 정은(이정우 분)과 정우(이대원 분)가 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 정우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지헌 부부를 안타깝게 한다.

지헌은 조막손이라는 신체적 장애보다 더 깊은 상처가 가슴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군부의 득세로 예편한 뒤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질곡의 생활을 하다 재혼하여 자신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간 아버지(김무생 분)에 대한 증오이다. 아버지의 실수로 인한 상처인 조막손을 볼 때마다 감정이 격해짐을 숨길 수 없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워 자식들에게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애정을 마음껏 주고 싶어하며 자신이 바라는 아버지상을 보여주려고 한다.

미국에서 아버지가 귀국하면서 지헌의 집은 회오리바람에 휩싸인다. 아버지를 향한 속정과 애증때문에 갈등하던 지헌은 아내의 설득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여 한집에 살지만 대면조차 꺼린다.

반면, 정우와 정은은 근엄하고 무섭게 생겼지만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김무생 분)에게 버림받고 잡초처럼 자란 아들(유인촌 분) 그리고 심장병을 앓아 부모의 과보호 속에 자라는 손자(이대원 분). 이 3대가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어 보게 하는 가정의 달 특집극 「따뜻한 손」이 온가족을 안방극장에 초대한다.

잘 이해해주고 생활에 바쁜 부모보다 잘 놀아주는 할아버지가 좋다. 때로는 해박한 지식으로 그들을 상상의 나라로 안내하는 할아버지가 경이로운 존재이며 우상이다.

피아노다 컴퓨터다 수영이다 해서 아이들을 숨쉴 틈없이 다구치는 아들 내외의 태도가 탐탁치 않은 할아버지는 아들 내외 몰래 손자에게 놀이기구를 사주며 함께 놀다가 아들 내외로부터 심하게 질책당한다. 한편으로 자녀들이 자기보다 아버지를 더 따르자 지현은 묘한 반발심과 질투심에 괴로워한다. 자기에게 인색하던 사랑을 손자 손녀에게 넘치도록 베푸는 것도, 자식들의 사랑을 빼앗긴 듯한 기분도 그로서는 참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아들 지현의 모습을 쳐다보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 가정

을 잃은 아픔을 아들이 알아주고 용서하길 바랬던 것이 욕심이었음을 깨달은 할아버지는 다시 미국행을 결심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우가 쇼크로 악화되고 예정보다 일찍 수술을 받게 되는데.

대강의 줄거리를 알고도 텔레비전 앞에 앉게 되는 것은 영상이 주는 진한 감동때문이다.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이다. 병상에서 할아버지를 찾는 정우, 아들을 위해 찾아나서긴 했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를 모르는 지헌, 그리고 이들을 감싸안는 한없는 할아버지의 정. 이들이 만들어내는 화해의 감동이 보는 이의 가슴에 진한 여운을 남길 것이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은 무수한 상처를 감싸안으며 키워가는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이야기 「따뜻한 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SBS가 선사하는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다.

글/남지혜
사진/정문경

비로소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아들. 그 아들을 따뜻하게 부여안은 아버지. 이들의 화해와 감동의 순간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길 것이다.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꿈과 모험의 세계로 신나는 여행

요즘 아이들은 애어른 같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달나라에 토끼가 산다는 얘기 같은 것은 씨도 안먹히기 시작한지 오래고, 전자오락에다 비디오에 푹 빠져 살면서 너무 빨리 세상을 알아버린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순전히 어른들의 책임이다. 순진하고 순수한 아이들에게 꿈 대신 현실을, 희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배우게 한 장본인들이니 말이다.

이젠 우리 부모들도 좀 달라져야 한다. 아이들에게 대학갈 것을 걱정해 참고서 하나 더 사주고 과외 한번 더 시키는 것보다는,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책이나 문화공연물을 같이 즐김으로써 '진짜 부모 노릇' 할 줄 아는 풍토가 빨리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작년 성황리에 공연되었던 '93 어린이 뮤지컬 「미녀와 야수」에 이어 올 어린이 날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뮤지컬 「피터팬」을 무대에 올리겠다는 SBS의 기획은 무척 반갑게 느껴진다.

우리 나라에서만 벌써 4번째 공연하게 된 뮤지컬 「피터팬」은 주인공인 피터팬 역에 윤복희, 이선희 등 최정상의 가수들이 캐스팅되었던 공연으로도 유명한데, 이번 공연에서는 「딩동댕 유치원」의 MC로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가수 이연경이 피터팬 역을, 탤런트 최주봉이 후크선장 역을 맡아 열연할 예정이다.

영원한 동심의 나라 네버랜드(무진장섬)에서 펼쳐지는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 「피터팬」은 영국의 동화작가 제임스 베리에 의해 탄생되어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동화이다. 특히 요즘처럼 물질문명이 발달한 세상에서도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재미있는 동화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만 봐도 그 인기도를 짐작할 수 있겠다. 아마도 그렇게 꾸준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면 날 수 있다는 꿈 같은 얘기, 악의 상징 후크선장을 물리치는 피터팬의 신나는 모험이 시종일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피터팬의 원작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 그 원래의 재미가 상당히 삭감된 기분이 든다. 또한 외국인에 의해 외국인에 대해 쓴 동화라는 점에서 우리 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면이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94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은 원작과는 좀 색다른 의의를 갖고 있다. 이번 공연의 줄거리는 피터팬에 의해 물속에 빠졌던 후크선장과 해적들이 다시 살아나 피터팬과 무진장섬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자, 약혼식을 마친 웬디와 그 동생들의 도움을 받은 피터팬이 후크선장과 해적들을 또 다시 물리친다는 내용으로 제임스 베리의 원작 「피터팬」의 내용을 뛰어넘는 「신 피터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원작이 전편이라면 이번 공연에 사용되는 줄거리는 그 후편이라 하겠다.

어느덧 어엿한 숙녀가 된 웬디의 약혼식장에 나타난 피터팬은 후크선장이 다시 살아나 무진장섬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며 도움을 청하고, 자신에게서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동심을 발견한 웬디는 동생들과 함께 피터팬을 따라 나선다. 그러나 피터팬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후크와 그 일당들은 무진장섬을 빙하의 섬으로 만들고 피터팬과 함께 후크를 물리치기로 약속한 인디언 친구들을 얼음궁전에 가둔다. 피터팬과 웬디 일행은 인디언 처녀 라이거 릴리에게서 인디언 친구들이 얼음궁전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

고, 그들을 구출해내지만 해적들은 끝내 인디언들을 격퇴시키고 만다. 게다가 웬디와 숲속의 아이들은 해적들에게 붙잡혀 해적선에 갇히고 결국 잠에서 깨어난 피터팬과 후크 일당은 일대 격전을 벌이는데….

이번 공연은 이처럼 줄거리만 흥미있게 바뀐 것이 아니라 노래, 안무, 무대장치, 의상까지 모두 신세대 감각에 맞게 재구성되어 흥미롭다.

노래의 경우 빠른 템포에 전자악기를 많이 사용하는 등 동요보다는 대중음악에 가깝게 편곡되어 어린이 관객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즐길 수 있게 배려했고, 안무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힙합 등의 춤사위를 많이 엮어 유행에 민감한 어린이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수 제작되는 얼음궁전과 대형 해적선 같은 무대장치와 출연진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무대 비행 특수장치를 동원해 시각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는 점도 상당한 볼거리이다.

무엇보다도 뮤지컬 「피터팬」의 완성도를 믿게 되는 것은 실력있는 연출가와 전문 뮤지컬 배우들이 꾸미는 무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번에 총연출을 맡은 김상열 감독은 「햄릿」 「유랑극단」 등의 연극과 「에비타」 「올리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미녀와 야수」 그리고 앞서 있은 3번의 「피터팬」 등 굵직굵직한 뮤지컬 무대를 총지휘해오면서 우리 나라 유수의 연극상을 여러번 수상한 경험이 있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특히 그는 유명한 극작가이기도 한데 이번 작품에 쓰인 희곡도 그의 작품이다.

"단순한 어린이 뮤지컬이 아니라, 가족 뮤지컬로 끌어 올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꿈과 희망을 배워야 하니까요.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후크를 흉악하고 무섭기만한 악당에서 좀더 장난끼 있는 개구쟁이 쪽에 가깝게 표현하여 이 세상에 악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심어줌과 동시에 더욱 많은 웃음을 자아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린이 관객이 그 어떤 관객보다 예민하다면서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금방 망신당하기 십상이라 더욱 알차고 짜임새 있는 공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주인공을 맡은 이연경과 최주봉의 이번 공연에 대한 열의는 한마디로 후끈하다. 이연경은 데뷔시절부터 매우 하고 싶었던 피터팬 역을 할 수 있게 되어 하늘을 진짜 날으는 기분이란다.

"요즘 아이들은 피터팬이 하늘을 날으는 장면을 보면 '야, 피터팬이 날아다닌다'하는 신기함을 느끼기 보다는 '음, 허리에 줄을 꼈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도 드라마나 영화에 몰입하면 현실과 드라마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듯이 아이들도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피터팬이 진짜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고 꿈을 꿀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는 이번 공연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매우 재미있어 할 뮤지컬이라며 가족 단위의 관람을 권한다.

최근 들어 연극에만 주력하고 있는 후크 선장 역의 최주봉은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 공연 관람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피터팬 같은 좋은 연극을 통해 또 다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유익한 공연물을 보여줌으로써 꿈을 심어주는 역할 말입니다."

- 일시/5월 5일~15일 오후 3시, 6시
- 장소/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 예매처/예음 홈티켓, 교보문고(광화문) 홍익서점(신촌), 세종문고(롯데월드), 월드북센터(신사사거리), 종로서적(종로 2가), 뉴코아백화점(반포점), 서울문고(무역센터), 비씨카드, 예술의 전당
- 입장요금/S석 15,000원 A석 12,000원 B석 10,000원, C석 8,000원

이처럼 꼭 유익, 무익을 따지지 않더라도 「피터팬」은 충분히 재미있는 뮤지컬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공연 한달 전부터 벌써 몇 회분의 표가 매진된 것만 봐도 알수 있듯이.

어쨌든 이번 어린이날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할까?'하는 심각한 고민에서 해방될 듯하다. 뮤지컬 「피터팬」을 함께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기계문명에 젖어 매말라 버린 아이들을 신나는 꿈의 세계로 인도할 줄 아는 인기 만점의 부모가 될테니 말이다. S

글/박석주·자유기고가

사진/정분경

어린이날 특집 「푸른 5월 밝은 세상」

어린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 어른들이 편견에 때묻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는 데 반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꼬마들만이 편견을 갖지 않고 진리는 진리로서 솔직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꿈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의 때가 조금도 묻지 않은 그들의 그대로를 담아내는 것이 동요가 아닌가 싶다.

신록의 계절 5월에 SBS가 마련한 어린이 큰잔치 「푸른 5월 밝은 세상」은 이제권 프로듀서가 연출을 맡고, 가수 이수만

제4회 SBS 고부노래자랑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는 「SBS 고부노래자랑」이 5월 3일 SBS 등촌동 공개홀에서 4번째로 열린다. 12팀이 참가하여 바람직한 고부상을 제시해줄 이번 대회는 5월 8일 오후 3시 10분 SBS－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다.

	성명(시어머니/며느리)	참가곡명
1	고미숙/오혜정	신토불이
2	박정숙/임계순 박지혜 이화순	만남
3	이순자/조미	못 잊겠어요
4	유업순/이옥림	산 너머 남촌에는
5	이연홍/박희자	사랑의 자리
6	이수경/이미정 박은경	사랑이여
7	김정희/신수정	그대 먼 곳에
8	김계춘/김명자	혼적
9	김혜미/하혜순	만남
10	김숙자/남궁연실	내마음 별과 같이
11	홍정희/이미영 윤영애 김희정	등대지기
12	이종분/이소영 신예현	사랑으로

과 소녀 탤런트 이의정의 진행으로 5월 5일 낮 2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어린이들의 세계를 그대로 반추해낸 아름다운 동요 마당을 펼쳐 보인다.

「푸른 5월 밝은 세상」은 1, 2부로 나뉘어지는데 1부는 선명회합창단과 한빛어린이합창단이 인기가수 신형원, 김민교, 김태후 등과 함께 동요를 선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2부에서는 김국환, 유현상 등 연예인 가족과 김관동, 김진원 교수 등 성악가 가족들이 출연」, 동요와 성악곡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로 작곡 70주년을 맞는 동요 「반달」을 비롯한 윤극영 선생님의 동요가 메들리로 소개되며 요즘 어린이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베스트 10'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의 앙케이트 조사 결과도 알아본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영화 10개를 조사, 어린이들의 정서와 기호를 감지해 보며, 박정훈 국회의원 부부, 김상원 대법관 등이 출연, 국악 창작 동요인 「과수원길」「눈이 내린다」 등을 부른다.

제3회 SBS 라디엔티어링 대회

푸르른 5월의 밝은 공기 속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목적지를 찾아가는 「제3회 SBS 라디엔티어링 대회」가 5월 22일 여의도에서 펼쳐진다.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4~6개국 대사관의 풍물전까지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방송을 출발, 한국방송공사를 걸쳐 국회의사당 뒤를 돌아 최종 목적지인 한강변에 마련된 특설 공연장까지 도착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최종 목적지에서는 푸짐한 시상과 함께 인기가수와 함께 하는 공개방송도 마련되어 흥겨움을 더해 줄 것이다.

참가원서는 5월 9일부터 20일까지 배부하며,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 700팀에 한해 선착순으로 참가비 1만원과 함께 접수한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모아지는 참가비는 유니세프의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제3회 전국 가족사진콘테스트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서울방송은 삼성항공과 공동으로 「제3회 전국 가족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한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5"×7" 크기의 컬러사진에 (필름 원판 동봉) 담아 보내면 된다. 작품은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방송(영등포구 여의도동 10-2)과 삼성카메라(강남구 대치동 890-8)의 전국 가족사진콘테스트 담당자 앞으로 우편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6월 24일 발표되며 대상, 금상을 비롯한 165명의 수상자에게는 동남아 여행 등의 푸짐한 상품이 주어진다. 7월 4일부터 9일까지 동방프라자 미술관에서 전시회도 가진다.

SBS가 함께한 장애인의 날
하나되는 기쁨

장애 비장애 구분없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을 가족처럼' 캠페인을 추진했던 SBS는 열 네번째 맞이하는 이번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도 특집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종일 방송을 실시했다.

「녹지원의 봄」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찾아간 청와대 녹지원은 대통령과 장애인의 따뜻한 교류로 4월 햇살의 따스함이 더욱 부드럽게 느껴지는 자리였다.

「사랑의 징검다리」의 진행자 유열의 사회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들,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에 입학한 자랑스런 얼굴들, 장애 관련 종사자들을 비롯 김용준 대법관이 참석했고 현철 박규채 등 장애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연예인들도 함께 했다.

이날 녹지원에는 서울시립 정신지체청소년 합창단의 노래 등 작은 음악회가 아름답게 펼쳐졌고, 작은 실수 속에서도 끝까지 열심히 해준 정신지체태권도단의 태권도 시범과 88 장애인 올림픽 때 성화를 든 엄마의 휠체어를 밀었던 보람이의 대통령께 보내는 감사의 편지는 모두에게 작은 감동을 전해주었다.

「장애인 론볼링대회」

88년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하여 장애를 극복한 그들의 의지에 감격하고, 많은 박수를 보냈지만 아직도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긴다는 사실은 낯선 느낌이다.

성남 국군체육부대 론볼링장에서 벌어진 「장애인 론볼링대회」는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파란 잔디 위에서 벌이는 론볼링대회는 표적구를 던진 뒤 각각 4개의 볼을 던져 승부를 가려내는 경기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그들의 여유있고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어 흐뭇한 자리였다. 이날 대회에서 단식 우승은 엄균홍 씨가 차지했고, 복식 우승은 송신남 최종용 조에게 돌아갔다.

「너와 나 우리들의 축제」

이제 장애인의 날은 더이상 소외된 그들에게 한번 더의 관심을 촉구하는 날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 그들의 날을 즐기고 또 모든 이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안는 날이 되어야 한다.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생방송된 「너와 나 우리들의 축제」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춤과 노래를 즐기며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인기가수 김건모, 코코, 박정운, 노이즈 등의 화려한 무대와 함께 용인대 특수체육학과생들의 휠체어 에어로빅, 선진학교 합주단의 연주, 손가락 장애이면서도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고 있는 이히아신따 어린이의 일기가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고, 참가한 연예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한 줄다리기를 통해 모두가 하나되는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S

사진/서창식

'94 봄철 프로그램 개편

온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한 방송

SBS의 '94 봄철 프로그램 개편은 그 어느때보다 의미가 크다. 이제 신생방송사라는 허물을 벗어버리고 청년 SBS로서 큰 기지개를 펴는 포부와 책임이 더욱 무게를 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우선 청년 SBS의 고유한 색깔 만들기였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건강한 방송 만들기였다. 이를 위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시사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주의를 선언, 가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색 소재의 드라마를 선보여 이제까지와는 전혀 색다른 드라마의 맛을 선사한다. 최고의 품질로 시청자를 찾아갈 SBS의 봄맞이 새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모아 보았다.

국제화 시대 선도, 가족 프로그램 확대

이철호·편성국 편성부

이번 봄철 프로그램 개편은 그 어느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 전체에 국제화니 개방화니 하는 구호가 불길처럼 번지고, 특히 방송 주변에서는 CATV가 구체화됨에 따라 그야말로 '경쟁력'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는 이즈음의 상황 때문에도 그렇지만 당장 우리 SBS로서는 첫 3년이 지나가고 그동안 따라다니던 신생 방송사라는 껍질을 벗어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사실 그간 SBS가 이루어낸 놀라운(?) 업적도 어찌보면 시청자들이 신생 방송사라는 이유로 많은 부분 눈감아 주고 덮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우리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허용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청자들은 SBS가 해내야 할 사회의 몫을 냉엄하게 요구할 뿐이다. 이는 신생이라는 꼭지를 떼어내도 될 만큼 SBS가 컸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아를 벗어난 청년 SBS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리라.

'94 봄철 프로그램 개편 작업은 이처럼 SBS가 감당해야 할 '사회의 몫'에 대한 고심에서부터 출발했다. 편성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우선 신생의 허물을 벗은 SBS의 고유한 색깔 만들기였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건강한 방송 만들기였다. 이를 위해 실제 개편 작업에서는 보도 시사 기능을 강화하고, 교양 프로그램의 국제화를 추구하며 가족주의를 선언, 가족 프로그램을 대폭 쇄신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개의 프로그램을 폐지하였고 21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15개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이동 또는 변경했다.

시청자의 알 권리 위한 보도 기능 강화

뉴스 프로그램의 경우 그동안 부족했다 싶은 뉴스 공백 시간대를 우선 보충했다. 초저녁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신설했고, 「SBS 헤드라인 뉴스」를 주말까지 확대했다. 또한 수도권 인구의 비중을 감안, 일요일 아침 시간대에 「수도권 현장」을 신설하는 한편 「SBS 8 뉴스」를 평일 50분, 주말 40분으로 확대 편성하여 시청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와 함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10분씩 「오늘의 스포츠」 시간을 마련, 하절기 스포츠 욕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 비전과 정보 제공의 교양성 추구

이번 개편에서는 무엇보다 교양 프로그램의 대폭 쇄신을 이루었다. 기존의 「사랑의 징검다리」, 「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환경탐사, 그린맨을 찾아라」, 「병원 24시」, 가족 다큐멘터리 「우리집 이야기」, 「세계의 가정」, 「시선집중 오늘」, 「세계로! 싱싱싱」, 「우리끼리 또래끼리」 등이 신설되었다. 이미 제목으로 보는 것처럼 주요 시청 대상층은 물론 소재면에서 매우 다양해졌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휴먼 다큐멘터리로 그 형식을 바꾸어, 중소기업인의 기업관과 인생역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시간대로 이동했다. 새로 방송될 「환경탐사, 그린맨을 찾아라」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의식 고취와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실천 방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감동과 함께 전해 줄 것이다.

「병원 24시」는 죽음과 소생의 순간 등 병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갖가지 상황들을 다룬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순간의 인간적 고뇌 등을 드라마화하고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응급처치 요령도 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세계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 사회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의사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도 이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이다.

「우리집 이야기」와 다큐멘터리 미니시리즈로 이어질 「세계의 가정」은 이번 개편의 큰 폭인 국제화와 가족화를 십분 반영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가족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끌어 갈 「우리집 이야기」는 점점 상실해가는 가족의 의미를 되살리고 가족간의 정을 되새길 수 있는 감동을 엮어내도록 준비되었다. 또한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에 이르는 12개 나라를 선정, 오늘날의 지구촌 가정들의 모습을 담은 「세계의 가정」을 통해 우리 가정의 모습과 비교해 보고 시야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자칫 가족이기주의로 치닫기 쉬운 우리네 모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아침 주부 대상 프로그램인 「시선집중, 오늘」은 독립적이고 자기 성취 욕구를 지닌 적극적인 여성들에게 지적 정보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세계로! 싱싱싱」은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어린이들에게 세계적인 시야와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끼리 또래끼리」에서는 공개 드라마와 모의법정이라는 형식을 도입,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이해하게 하여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재미와 더불어 교육적인 효과를 선사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이색 소재의 드라마 신설

교양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소재는 드라마 프로그램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일요일 밤에 방송될 「박봉숙 변호사」는 법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서 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법의 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월, 화요일 밤 9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미니시리즈 형식의 드라마 스페셜에서는 제1화로 「도깨비가 간다」가 편성되었다. 도깨비를 소재로 하여 진정한 우리 문화, 우리 혼을 다시 생각하게 해 줄 이 드라마에 대해 시청자들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드라마의 맛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오락 프로그램의 가족주의 선언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그동안 가족 공동시청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몇몇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전세대가 함께 모여 시청할 수 있는 건전 가족 프로그램으로 내용과 형식을

대폭 쇄신하였다. 이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시청자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SBS가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맞수 TV 최강전」, 「전격! 테크노 퀴즈」, 「좋은 친구들」, 「콘테스트 내가 본 세상」, 「생방송 TV 가요 20」, 「순간 포착, 당신이 특종」 등의 신설된 프로그램에서는 재미와 정보를 함께 선사하고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열어놓았다.

그밖에 외화 2편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미국의 중학생들이 펼치는 즐거운 학창시절 이야기를 그린 「베이사이드 얄개들」과 한때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던 「형사 콜롬보」의 신작이 그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편 작업에서 시도한 편성상의 가장 큰 특징을 들자면 무엇보다 '가족 시청 시간대'를 준비했다는 점일 것이다. 평일 저녁 7시 시간대에 「우리집 이야기」 「대결 20/40」, 「세계의 가정」, 「맞수 TV 최강전」, 교육 현장드라마 「공룡선생」을 편성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온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가족간

또는 세대간의 단절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시청자 주권시대에 부응한 편성

편성에서 시도한 또다른 특징으로는 각 요일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편성에 적극 반영했다는 점이다. 흔히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면 매일 같은 시간에 방영하는 것이 편성의 정석처럼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이러한 고정된 틀을 벗어버리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의 스포츠」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 평일에는 10시 50분에, 금요일에는 11시 25분, 주말에는 8시 40분으로 각기 다른 시간에 편성하였다.

이는 시청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 놓은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텔레비전 앞에 앉기보다는 그날 그날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좇아 시청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봄맞이 집단장하듯 그렇게 봄철 개편을 했다. 신설된 프로그램들이 아닌 기존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새로운 포맷, 새로운 소재, 새로운 장치들로 새롭게 꾸몄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제각기 독특함을 추구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시청자들이 알아준다면 청년 SBS의 색깔 만들기, 그 첫 단계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게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시청자들에게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SBS의 '몫'이기 때문이다. S

방송시간이 바뀐 프로그램

프로그램	방송시간
아침연속극 행복하고 싶어요	월~토요일 아침 8시 45분~9시 15분
알뜰살림퀴즈	월~금요일 아침 9시 15분~40분
SBS 헤드라인 뉴스	월~목요일 밤 9시 45분~50분·토, 일요일 밤 10시 50분~55분
스타와 이밤을	월요일 밤 11시~11시 50분·일요일 밤 10시 55분~11시 55분
수목드라마 이 남자가 사는 법	수, 목요일 밤 9시 50분~10시 50분
21세기 신한국의 선택	화요일 밤 11시~11시 50분
SBS 시사기획	목요일 밤 11시~11시 50분
사랑의 징검다리	토요일 오전 9시 15분~45분
그것이 알고싶다	토요일 밤 9시 50분~10시 50분
TV를 말한다	토요일 밤 12시 40분~1시
젊은 인생	일요일 아침 6시~6시 45분
달리는 사람들	일요일 아침 7시 50분~8시 20분
스포츠 특선만화 피구왕 통키	일요일 오전 8시 20분~9시 5분
타임트렉스	수요일 밤 11시~11시 50분
SBS 바둑 최강전	일요일 밤 11시 55분~1시

「오늘의 주요뉴스」

방송/월~금요일 저녁 6시 55분~7시

국제화, 세계화를 외치는 요즘,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신의 정보가 아닌가 싶다. 「SBS 8 뉴스」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는 「오늘의 주요뉴스」는 오늘 하루동안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뉴스 하이라이트 시간.

「수도권 현장」

방송/일요일 아침 6시 45분~7시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사람들. 모든 정보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어, 서울과 가까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를 찾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서울 못지않게 급변하고 있는 수도권의 소식을 심층 취재하는 프로그램이 「수도권 현장」.

이 프로그램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건설 현장, 지방 문화, 지역 숙원사업 등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계획이다.

「오늘의 스포츠」

진행/김영성

방송/월~목요일 밤 10시 50분~11시
금요일 밤 11시 25분~35분
토, 일요일 밤 8시 40분~50분

오늘의 프로야구 전적도 궁금하고, 얼마남지 않은 월드컵은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리고 어떤 스포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어느 나라에서 어떤 스

4월 18일부터
4인체제로 바뀌어
더욱 활기를 띄고
있는 「SBS 8 뉴스」

포츠가 인기있는지,… 이 모든 궁금증을 확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오늘의 스포츠」.

매일의 국내외 주요 경기 하이라이트를 한 눈에 보여주는 「오늘의 스포츠」에서는 스포츠 기획 뉴스, 인기 종목의 경기 내용 등도 종합 구성해 방송한다. S

인터뷰

「SBS 8 뉴스」의 한수진 앵커

"어깨가 무거운 만큼 잘해보겠다는 자신감도 큽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SBS 8시 뉴스」의 진행이 4인 체제로 바뀌며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기존의 맹형규 앵커 외에 문화과학부 한수진 기자, 스포츠 분야를 담당하는 스포츠취재부의 김유석 기자, 기상을 담당하는 문화과학부 이찬휘 기자가 새로 합류했는데 그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이가 한수진 기자가 아닌가 싶다. 홍일점이라는 점 말고도 그간 착실히 앵커 수업을 받은, 다시 말해 앵커로서의 통과의례를 찬찬히 거친 여성 앵커라는 점에서 그의 등장은 세인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이 뜻밖의 행운(그의 표현을 빌자면)에 대해 새내기 방송사에서 볼 수 있는 과감한 신인 기용일 뿐이라며 일축한다. 방송기자 경력이 한 10년쯤 된 베테랑 기자라면 메인 뉴스앵커 자리가 매우 자랑스럽겠지만 이제 3년차인 그에게는 기자 출신 첫 여성 앵커라고 덧붙이는 말들이 낯간지럽기까지 하다.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이었던 91년, 서클 선배의 권유로 방송사 입사 시험에 응시, SBS맨이 되었다. 그 후 사회부 문화과학부 등을 돌며 기자는 이렇게 해야하고 방송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조금 알게 될 즈음인 작년 6월부터 주말의 「SBS 8시 뉴스」 앵커에 발탁되었다.

앳된 얼굴, 스물다섯의 나이 등, 겉으로 보이는 그에게는 메인 뉴스의 앵커가 지녀야할 경험과 연륜에서 배어나오는 중량감이나 무게 중심 등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또한 누구보다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그이기에 아직은 앵커보다는 기자로 불려지길 원한다.

어떤 앵커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지금은 시작인 만큼, 그가 쟁쟁한 앵커들의 대열에 포함될 그 언젠가에는 그런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바람이 있다면 「SBS 8 뉴스」의 시청률이 천정부지였으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S

정보·고양

가족 다큐멘터리 「우리집 이야기」

연출/박정훈, 이창태

진행/이재윤, 김연주

방송/월요일 저녁 7시~8시

가족이라는 말 속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정이 담겨 있다. 가족상실의 시대라 불리울 정도로 각기 자기 생활에 바쁜 현대인에게도 아직 그런 정겨움은 남아 있다.

아버지의 진솔한 모습을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자리'를 비롯 가족 구성원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한편, 일상을 떠난 여행길에서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대화 등을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소개하는 「우리집 이야기」에서 가족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게다. (자세한 내용은 54쪽 참조)

다큐멘터리 미니시리즈 「세계의 가정」

연출/홍성완, 이웅모, 홍순호, 원춘건

제작/SBS, 한맥, 제3채널

방송/수요일 저녁 7시~8시

전쟁과 질병, 기아, 실업, 마약, 에이즈 등으로부터 지구촌 곳곳의 수많은 가정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없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12부작 다큐멘터리 미니시리즈 「세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그 사회를 재난과 파괴로부터 막아주는 첫번째 방어막이라는 인식하에 참된 가정의 가치와 행복의 척도를 제시한다.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 12개국을 선정, 4개팀이 3개국씩 맡아 취재한 이 프로그램은 SBS와 외부 프로덕션인 제3채널과 한맥이 제작에 참여, 코 프로덕션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 (자세한 내용은 50쪽 참조)

「시선집중, 오늘」

연출/박일경

진행/허참

제작/SBS프로덕션

방송/월~금요일 아침 8시 15분~45분

주부라고 해서 시대 감각에 뒤떨어진 채 집안만 지킨다는 것은 이미 옛말. 거리에선 패션감각이

뛰어난 '미시족'이 확보하고,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전문가 못지않은 감각으로 촌평하는 이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잖다. 이런 신세대 주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프로그램이 「시선집중, 오늘」이라 하겠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통계를 재미로 풀어보는 '월요 통계쇼', 명사와 주부의 깜짝 데이트 '화요 선언', 일상의 생활에서 떠나 색다른 경험을 하는 '수요 일상 탈출', 신혼이나 젊은 주부의 실생활을 소재로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접목한 '목요 페미니즘', 대기업 총각사원들의 구인광고 '금요 팡파레' 등으로 매일 색다른 아이템을 준비,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다.

「병원 24시」

연출/김주성

제작/제일기획

방송/목요일 밤 8시 55분~9시 45분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 병원이 아닌가 싶다. 하루 24시간 질병과 사고가 연속되는 병원에서의 생활을 담는 「병원 24시」는 질병뿐 아니라 현대인의 스트레스성 질환 등 정신적 질환의 징후, 치료과정을 통해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처치 요령 등의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키는 한편, 건강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실제에 가까운 재연과 촬영, 당사자의 인터뷰 등으로 리얼리티를 살린다.

「환경탐사, 그린맨을 찾아라」

연출/김태형

진행/이재룡

제작/인디컴

방송/토요일 아침 8시 15분~45분

환경보호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 장소를 찾아본다거나 어린이의 눈에 비친 환경의 문제점, 재활용 방법, 새 환경상품, 시청자의 환경 아이디어 등을 소개한다. 진행은 연기 생활 8년만에 MC로 데뷔하는 탤런트 이재룡이 맡아 의욕에 차 있다. S

드라마

드라마 스페셜 「도깨비가 간다」

극본/윤정건

연출/이장수

방송/월, 화요일 밤 9시 50분~10시 50분

가장 한국적이며 인간적인 귀신, 도깨비. 어떤 일이든 이루고야마는 맹렬 프로듀서 민강지 팀장, 도깨비 설화에 푹 빠져있는 유민상 프로듀서, 의욕만 앞선 해맑은 웃음의 방송 초자 최인영 프로듀서, 도깨비의 실체를 찾아 나선 이들 앞을 가로막고 나선 한국혼 파괴의 거두 김일환, 그리고 역사의 비밀을 움켜쥔 의문의 사나이 한태우. 이들이 벌이는 한판 승부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심성의 저변에 깔려있는 도깨비의 정체가 선연히 보여진다.

법정드라마 「박봉숙 변호사」

극본/윤대성, 이선희

연출/김한영

방송/일요일 밤 9시 50분~10시 50분

요즘 들어 잘 잘못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을 때 상당의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라고 큰소리 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만큼 법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실생활에서 얼마만큼 법을 알고 이용하느냐에는 의문이다.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 그 방법을 몰라 고통받는 선의의 시민들, 특히 가정과 법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상담과 판례 등을 통해 지혜로운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이가 박봉숙 변호사이다. 판사 생활을

거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지 8년째인 40대의 베테랑 법조인 박봉숙의 활약이 법의 생활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SBS 화제작 「궁합이 맞습니다」

극본/서영명
연출/이종수
방송/토요일 낮 1시~2시

방송 프로그램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볼 기회가 그리 흔한 게 아니다. 가끔씩 뇌리에 남는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은 욕심도 생기지만 수월찮다. SBS-TV가 92년 봄에 방송, 코믹드라마의 선두 역할을 했던 「궁합이 맞습니다」도 그중 하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일단 등을 돌리면 먼 관계가 되는 부부 사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 생활 방식과 습관이 다른 남녀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제 지상주의자인 진옥과 낭만과 지혜 부부, 마마보이 용석과 강한 모성애의 현자 부부, 출세 지향주의자인 완수와 그래서 고독한 소영 부부. 이 세 부부가 벌이는 2인 3각 경주를 통해 현대를 사는 부부들의 초상을 짐작해본다. S

·오락·코미디

「콘테스트 내가 본 세상」

연출/정순영

진행/임하룡, 김미화

방송/수요일 밤 8시 55분~9시 45분

격변하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나임을 인식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내 삶의 잣대로 바라 본 세상은? 재미있으면서도 고독하고, 즐거우면서도 슬픈 우리네 삶의 내음이 더덕더덕 묻어나오는 우리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살펴본다. 4~5명의 출연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아이템을 설명, 아마추어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게 된다.

「맞수 TV 최강전」

연출/최성인

진행/김승현

방송/목요일 저녁 7시~8시

맞수는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서로를 파멸시키기도 한다. 「맞수 TV 최강전」은 서로 비슷한 범주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한데 묶어 맞수라기 보다는 같은 길을 가는 동료들의 한판 어우러짐을 통해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스타들의 숨겨진 장기도 펼쳐져 그 기대가 한층 크다.(자세한 내용은 60쪽 참조)

「전격! 테크노 퀴즈」

연출/성영준

진행/홍서범, 조갑경

방송/일요일 아침 9시 5분~10시

컴퓨터라는 문명의 이기로 대표되는 현대에서는 '컴맹'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삶의 필수요건이 되었다. 컴퓨터 시대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전격! 테크노 퀴즈」가 아닐까 싶다. 컴퓨터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등 최첨단 하이테크를 이용한 퀴즈 프로그램「전격! 테크노 퀴즈」는 온가족이 함께 모여 답을 추리해감으로써 재미와 함께 상식과 지식을 넓힐 기회가 되기도 한다.(자세한 내용은 66쪽 참조)

「좋은 친구들」

연출/김병욱

진행/최양락, 이봉원

방송/일요일 낮 11시~12시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을 보아오면서도 친구라는 단어를 쓰기에

는 어딘가 꺼림칙하다. 어른들로부터 TV는 바보상자라는 말을 들어서일까?

텔레비전이 좋은 친구라고 느껴질 때, 바로 「좋은 친구들」을 시청할 때가 아닐까 싶다. 연예인들이 벌이는 이색 스포츠 대결, 시청자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사랑하개론, 국내외 유명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뮤직 스테이션, 표인봉 윤정수가 만드는 흑백 무성영화 두 남자와 영화만들기 등. 최양락 이봉원 최고 콤비의 진행으로 펼쳐지는 「좋은 친구들」은 시청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본격 가족 오락 프로그램이다.

「생방송 TV 가요 20」

연출/김혁

진행/코코

방송/일요일 저녁 5시~6시

이번 주에 가장 인기 있었던 가요는 어느 것일까? 또 요즘의 가요 경향은 어떤가? 그 노래가 왜 인기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한꺼번에 풀어주는 프로그램이 「생방송 TV 가요 20」이다. 조사기관과 이동 투표기의 집계로 한주간의 인기 순위를 알아보는 「생방송 TV 가요 20」은 컴퓨터 게임을 이용한 순위 발표로 재미를 더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등촌동 SBS 공개홀에서 공개 생방송으로 진행,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전달한다.

「순간 포착, 당신이 특종」

연출/이풍호

진행/이수만

방송/일요일 저녁 7시~8시

방송사에 길이 남을 만한 특종을 내가 만든다? 「순간 포착, 당신이 특종」은 시청자들에게 화면 안으로 들어오라고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순수 아마추어들의 작품 발표의 장이라는 꼬득임과 함께.

참가 대상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도 눈을 돌려 21세기에 대비한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는 번득임도 보인다.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보여질 「순간 포착, 당신이 특종」은 대학생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명예 프로듀서제도 도입, 신선한 아이디어가 꿈틀거리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S

어린이

「세계로! 싱싱싱」

연출/설진아
진행/윤해영, 리키 스미스
제작/SBS 프로덕션
방송/월~목요일 저녁 5시 40분~6시

'지구촌'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실감나는 요즘이다. 이제는 눈과 귀를 세계를 향해 활짝 열어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현명하게 수용하여 '우리의 것'으로 제대로 소화해내야 한다.

세계를 바라보는 올바르고 폭넓은 시야를 키우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프로가 「세계로! 싱싱싱」이다. 상식 수준의 정보에서 탈피,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과학 음악 문화 영화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동화나 소설 등을 각색한 패러디극장 등이 큰언니처럼 친근한 탤런트 윤해영과 어린이들에게 영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현을 가르쳐 줄 리키 스미스의 진행으로 방송된다.

「우리끼리 또래끼리」

연출/최상근, 이용수
진행/모노
제작/삼희기획
방송/금요일 저녁 5시 40분~6시 10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이해 속에 어른들은 요즘의 어린이들을 포용하고 있을까. 아무리 훌륭한 교육의 이론과 방법도 어린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는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그룹 모노의 진행으로 펼쳐지는 「우리끼리 또래끼리」에는 이 시대 어린이들의 꿈과 가치관이 담겨져 어른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그들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신구세대의 갈등을 엮을 드라마 속에 어린이들의 인터뷰를 접목, 그들의 달라진 눈높이를 시사하는 가족특급, 모의법정 형식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논리특급 등으로 구성된다. S

「베이사이드 얄개들」

원제/Saved By The Bell

담당 PD/송길우

방송/토요일 저녁 5시~5시 55분

사람들은 각 세대마다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 그중에서 10대 청소년들은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지닌 세대이기에 그들만의 밝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간다.

전세계 40여 개국에서 방송되어 세계 각국의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베이사이드 얄개들」에서는 참신하고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가는 청소년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남녀공학인 캘리포니아 베이사이드 학교를 배경으로 개구쟁이들의 학창생활이 펼쳐지는 하이 시추에이션 코미디.

「신 형사 콜롬보」

원제/Columbo

담당 PD/김하정

방송/토요일 밤 10시 55분~12시 40분

부시시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구깃구깃 구겨진 베이지색 바바리, 그러나 날카로운 눈매, 뛰어난 추리력으로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나가던 피터 포크의 '형사 콜롬보'는 아직도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점점 지능화 과학화 되는 범죄에 맞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 콜롬보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다. 새롭게 제작된 「신 형사 콜롬보」는 원숙미와 노련미를 더한 형사 콜롬보의 과학적 추리력이 감탄을 자아내며 더욱더 첨단화된 범죄행태와 심리묘사를 탁월하게 엮어냈다.

토요일 밤 10시 55분에서 95분 동안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오락물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오랜만에 지적인 쾌감과 흥미를 한껏 안겨줄 것이다. S

다큐멘터리 미니시리즈 12부작 「세계의 가정」

지구촌 보금자리의 행복과 미래

제작/SBS, 제3채널, 한맥
연출/홍성완, 이몽모, 홍순호, 원춘건
방송/매주 수요일 저녁 7시~8시

S봄철 개편과 함께 내년까지 100편의 다큐멘터리가 미니시리즈 형식으로 제작되어 방송된다. 그 첫 시리즈가 「세계의 가정」 12부작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구촌 곳곳의 수많은 가정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저개발 국가의 가정은 질병, 빈곤, 전쟁, 기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속수무책이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가정은 실업, 약물중독, 범죄 및 에이즈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없이 사회나 국가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UN도 올해를 '세계 가정의 해'로 정하여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다큐멘터리 미니시리즈 「세계의 가정」은 세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그 사회를 재난과 파괴로부터 막아주는 첫번째 방어막이라는 인식 아래 참된 가정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행복은 무엇인가를 취재하여 가정의 행복은 국가의 미래에 힘과 희망을 약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기획되었다.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각 대륙별로 특징적인 나라

12개국을 취재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오늘날 지구촌 가정들이 겪는 행복과 불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유럽 지역은 독일 스페인,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 터키, 아프리카 지역은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미주 지역은 미국과 뉴질랜드이다.

제1편 터키 소아시아 반도에 위치한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서양의 관문이다.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서쪽으로 가는 문화적 교통지로서 실크로드의 종착지였다. 시대에 따라 30개의 민족이 거주했던 땅이며, 동서문화가 수도 없이 교차한 탓에 지금도 이 땅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유적이 혼재된 채 남아있는 독특한 나라이다. 국토의 97퍼센트가 아시아쪽에 있으며 인구 또한 90퍼센트가 아시아쪽에 살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지만,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터키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제2편 케나 아프리카에서 가장 서구화된 곳으로 손꼽히는 나라. 1964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케나는 문명과 원시가 공존한다. 태양 속의 도시라 불리우는 수도 나이로비는 최고 시설의 빌딩과 호텔이 즐비한 문명의 상징이다. 그런가 하면 가시덩굴로 울타리를 치고 쇠똥으로 벽을 바른 집에서 소변을 마시며 사는 마사이족도 있다. 이제 그들의 날카로운 창과 전사의 춤은 관광상품으로 전락하고, 자본주의의 호된 바람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들에게 문명은 희망인가 좌절인가?

제3편 이스라엘 나라를 잃은 채 겪어야 했던 2000년 동안의 방랑, 유태인들의 가장 큰 꿈은 '귀향'이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귀향, 그리고

실크로드의 종착지 터키.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는 그들 가정의 여인네들 모습이 친근하고 눈에 익다.(위 사진) 문명과 원시가 공존하는 나라 케나. 이 혼돈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아래 사진)

가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4편 미국 미국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가정의 파괴에 있다고 보고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추적한다. 아울러 가정을 되살리기 위해 핵가족에서 대가족을 점차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취재하여, 지금껏 미국사회를 지키는 엄격한 도덕률이 가정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힌다.

제5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오늘은 흔히 우리 나라의 1960년대와 비교된다. '잘살아 보세'라는 기치 아래 우리 나라가 그 당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사회 문제를 잉태하기 시작했듯이 인도네시아 역시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산업화, 그것이 인도네시아 가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6편 스페인 투우의 격렬한 죽음과 플라멩고의 열정이 숨쉬는 나라. "아미고" 한마디에 평생 친구가 되는, 의리가 있고 남편이 죽으면 평생 검은 옷을 입고 다닐 만큼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일편단심을 지니고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다. 서구 사회답지 않게 동양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스페인 가정을 통해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추적한다.

제7편 일본 아버지가 했기에 아들이 마땅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의 일이기에 마땅히 내가 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은 대를 이어 가업을 잇는다. 대를 이어 우동 장사를 하고 과자장사를 하는 등 그들의 기존질서나 가치가 튼튼하게 이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본다.

제8편 페루 잉카의 후예들이 일구어 놓은 나라. 아직도 신비에 쌓인 잉카 유적 마추피추를 비롯해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밀림 등 페루는 남미의 매력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의 나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그러하듯 오랫동안의 정치적인 불안정과 경제난에 시달려왔다. 페루의 개혁을 이끄는 주인공은 남미 최초의 아시아계 대통령인 후지모리. 과연 개혁의 물결 속에서 페루의 가정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제9편 독일 냉전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데올로기의 높은 벽

오랜 귀향살이는 유태인으로 하여금 나라와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했다. 독특한 생활 풍습을 지켜나가는 유태인에게는 결혼이야말로 그들의 전통을 잇는 출발점이다.

은 허물어졌다. 이제 독일에게 던져진 숙제는 무엇인가? 사회가 변하면 가정도 변한다. 동·서독 양쪽의 가정을 취재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대비한다.

제10편 스리랑카 남방불교가 가장 발달된 나라로 전 국민의 74퍼센트가 불교신자인 싱할리족이며, 18퍼센트가 힌두교도인 타밀족, 7퍼센트가 이슬람교도인 무어족이다. 3개의 종교로 나뉜 작디 작은 섬나라. 종교는 그들에게 벗어 버릴 수 없는 운명일까? 한 가정에서 종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종교라는 규범 속에 살아가는 스리랑카 가정의 명과 암을 취재한다.

제11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이 지구상에서 흑과 백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곳. 흑인의 대지 위에 세운 백인 공화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피부색은 절대적인 조건인가? 다이아몬드와 금광을 서로 차지하려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치열한 쟁탈전이 계속되어 왔다. 그렇게 시작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 풍부한 지하자원 덕분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자는 소수의 백인들일 뿐, 대다수의 흑인들은 주거 지역마저 제한된 채 인간으로서의 삶을 박탈당해 왔다. 백인의 지배 속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흑인들의 삶을 추적한다.

찬란했던 잉카 문명의 후예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는 오늘의 페루. 과연 개혁의 물결 속에서 그들의 가정생활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 사진은 페루의 시장 풍경.

제12편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흔히 지상의 유토피아라고 불린다. 부족할 것 없는 뉴질랜드 가정은 어쩌면 이 지구상의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일른지도 모른다. 그들에겐 선진국에서 흔히 보이는 풍요 속의 빈곤이 거의 없다. 완전한 행복, 과연 그것만이 행복 조건의 전부일까?

다큐멘터리 미니시리즈 「세계의 가정」은 뉴질랜드 편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폭동 속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취재한 이웅모 차장, 뉴질랜드 취재중 눈이 안보여 급히 귀국한 홍성완 차장, 그리고 짧은 제작 기간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취재에 임해 준 제3채널의 홍순호, 원춘건 프로듀서를 비롯한 스태프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S

글/홍성주·TV제작국 교양 3CP

가족 다큐멘터리 「우리집 이야기」

가슴 가득히 고여오는 훈훈한 가족사랑

"삭막한 세상에 '가족적'이라는 말처럼 정다운 것은 없다. 타인들끼리지만 형이요, 아우요, 어머니요, 아들이라면 그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잘못이 있어도,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한 울타리 안에서 한 핏줄기를 나눈 가족끼리는 모든 것이 애정의 이름으로 용서된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기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픔을 나누는 것이 가족의 '모랄'이다."

이어령은 「차 한잔의 사상」에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녹일

연출/박정훈, 이창태
진행/이재윤, 김연주
방송/매주 월요일 저녁 7시~8시

수 있는 '용광로'로서의 '가족의 모랄'을 제시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를 아는 것이 우선인데 과연 우리는 가족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쓴맛, 단맛을 감내할 자세는 과연 되어 있는가?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다. 아버지는 생존경쟁의 현장에서, 자녀들은 입시지옥과 물밀듯 밀려오는 정보의 홍수에 떠밀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다. 집에 들어올 때는 전쟁터에서 만신창이가 된 뒤 심신이 지친 상태이고 다음날의 전쟁을 위해 잠시라도 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대화는 뒷전이다. 그저 얼굴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한 끼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면 성적이 좋은 날로 기록될 만할 것이다. 그리고 정작 고민이 있어도 가족보다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대인이다. '가족' 개념이 이처럼 희박해져 가고 있지만 느끼지도 못하고 느낀다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그리 이상할 것도 없다고

늘 함께 있어서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잊고사는 가족들. 잃어버린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주겠다는 가족 다큐멘터리 「우리집 이야기」에서는 우리 식구, 우리 이웃들이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진솔하게 그려본다.

지난 25년 동안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바다로 나가는 뱃사람 김봉용 씨. 대학 졸업반인 그의 아들 민근이가 아버지를 따라 배에 올랐다. 배에서 아버지와 보낸 그 하루. "오늘따라 파도가 유난히 심하다"며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민근이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생각하는 것이 또한 현대인이다. 가족 개념이 희박해지다 못해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다.

바로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 주겠다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4월 18일 첫 방송을 한 가족 다큐멘터리 「우리집 이야기」는 세 가지 코너로 구성된다.

우선 첫번째로 '아버지의 자리'는 가족 생존의 터전인 아버지의 직장에서 2,3일 간 아들이나 딸이 함께 일을 하고 느낀 점을 털어놓는 코너다. 스태프들로서는 제작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코너라고 한다.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이면 아들이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순직에서 출연자를 물색하는데 섭외에 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창피하게 뭐 이런 일을 찍겠다고 그럽니까?" "아들에게만은 이런 일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아버지들이 별로 없다는 말이다.

첫 방송의 주인공도 방송 3일 전에야 촬영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인천 부두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고득태 씨. 스태프들은 그의 결단에 '용기있는 아버지' '자랑스런 아버지'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배추장수, 뻥튀기장수, 엿장수 등 힘든 허드렛 일을 두루 해온 그는 지금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자식들에게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

한다.

대학생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육체 노동을 하고 난 뒤 소감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아버지를 편안히 모시겠다"라는 말이었다. 그는 아들 앞에서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아버지로서 존경받는다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님을 '아버지의 자리'가 웅변으로 보여준 것이다.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딸과 부인도 "아버지가 왜 그렇게 목소리가 컸는지, 얼굴은 왜 그렇게 시커먼지, 이제는 안 것 같다"면서 울먹였다.

두번째 코너는 '○○네집', 첫번째로 소개되었던 미혜네는 아버지가 후두암으로 입원해 있는데 밀린 수술비가 기 백만원을 넘는다. 만딸인 미혜는 열일곱살로 공장에 다니고 있고, 아래로 중학교 1학년과 국민학교 3학년짜리 동생이 있다. 둘째는 학교만 마치면 아버지가 계시는 국립의료원으로 달려가 아버지 간병에 매달리고 막내는 그 언니의 도시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배달하고 있다.

요즘같이 험악한 시대에는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 언제 불행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다. 불행 앞에서 인간은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장애아라는 이유 때문에 핏덩이를 내다 버리고 병든 노부모를 외면하거나 또는 돈으로 불행을 막아보려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는 아닌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타인의 불행 앞에 가장 고귀한 위로는 무엇보다 시간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한치라도 가까이 있어주려는 노력, 아낌없이 나의 시간을 쏟아부어 주는 것, 그보다 귀한 것은 없다. 가장이 쓰러진 미혜네 집이 다시 일어서는 유일한 길은 세 자매가 더욱 똘똘 뭉치는 길밖에 없음을 세 자매는 이미 알고 있는, 대견한 모습이었다. 고통중에 있지만 이미 세 자매는 축복을 받은 것인지 모른다.

앞으로 이 코너는 미혜네처럼 가슴 아픈 사연뿐만 아니라 별난 가족, 재미있는 가족, 특이한 가족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혹시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가족

하늘을 나는 부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김석기, 김정금 부부는 패러글라이딩 강습을 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며 산다. 그들에겐 다만 하늘이 있어 행복하고, 둘이 함께 할 수 있어 더더욱 행복하다.

과 마주친 일이 있는가. 얼른 알아보지 못한 적은 없는가. 집에서는 매일 무감동하게 마주치던 부모님을 길에서 만났을 때 공연히 콧등이 찡해지고 연민이 느껴진 적은 없는지.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인연이 갖고 있는 끈끈함이란 속성일 것이다.

낯선 공간에서 가족을 재발견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코너가 '가족 여행'이다. 결혼을 앞둔 딸과 아버지가, 또는 정년퇴직이나 환갑을 맞은 부모가 자식과 여행을 떠나는 코너다. 첫 여행자는 결혼을 3주일 앞둔 김순기 씨와 아버지 김학중 씨. 여행지는 순기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갔던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몽산포의 바닷가였다. 교통수단은 아버지의 트럭. 김순기 씨의 아버지는 트럭을 몰고다니는 고물수집상이다.

가장 아름답다는 5월의 신부가 될 순기 씨는 고물상 아버지의 털털거리는 고물 자동차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모처럼 아버지와 회포를 풀 수 있어서 그 어떤 여행보다 뜻깊었다고 했다. 뭐니뭐니해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줘서 정말 고맙습니다"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반듯하게 키워준 아버지를 존경하고 가슴 깊이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기회를 만들지 못하던 차에 「우리집 이야기」의 '가족 여행' 코너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선뜻 고물 자동차를 타고 따라나서 준 딸이 고마웠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딸을 좀더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털어놓았다.

이 프로는 이재윤 아나운서와 전문MC 김연주가 사회를 맡았다. 이재윤은 뉴스 앵커에서 주부 이야기 마당에 이어 가족 프로그램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서울방송의 재목이다.

"미혼일 때 다르고 아이 낳고

현대인들이 점점 잊고 살아가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과 가족의 참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그 어떤 제작의 어려움도 뛰어넘겠다며 각오가 대단한 박정훈(위 사진), 이창태(아래 사진) 프로듀서.

언니를 제치고 먼저 결혼하는 동생 이은경과 언니 이은영 자매가 서로에게 미안하고, 섭섭한 마음을 뒤로 하고 홀가분히 둘만의 여행을 떠났다. 행선지는 단양. 1박 2일의 여행길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깊이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나니까 또 다른 게 방송이라는 생각이 절실해요. 특히 이 프로는 그런 느낌이 더욱 진하게 들어요. 그나저나 저는 눈물이 많은 편인데 진행하다가 울음이 터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출산으로 약간의 공백을 가진 후 처음 마이크를 잡은 김연주와 다정다감한 인상의 이재윤의 진행은 두 사람의 따스한 가정 생활로 인해 더욱 빛을 발하는 느낌이다.

「우리 집 이야기」는 박정훈, 이창태 프로듀서의 정성으로 만들어진다.

"새 프로그램이라서 인지도가 낮고 구성안도 까다롭기 때문에 제작에 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은 했지만 실전에 부딪혀보니 예상보다 애로사항이 훨씬 크더군요. 부모, 자식 간에도 결코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벽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느꼈어요. 하지만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던 가족을 구체적인 현장을 통해서 솔직하게 드러낼 때, 즉 가족을 재발견하지 않는다면 화목한 가정이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프로그램 제작의 장애도 쉽게 극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따스하게 감싸안으며 그들의 삶을 훈훈하게 전해주었던 「사랑의 징검다리」를 제작했었던 이들이 이제는 가족 다큐멘터리 제작에 의기투합했다. 가족의 참 모습을 모색하고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S

글/이성아·소설가
사진/서창식

「맞수 TV 최강전」
젊음과 재치로 펼치는 우정어린 멋진 승부

연출/최성인
진행/김승현
방송/매주 목요일 저녁 7시~8시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 이상 피할 길은 없다. 대결은 필수고 승리는 선택이다. SBS가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하면서 교양 오락 프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프로가 있다면 뭐니뭐니 해도 「맞수 TV 최강전」이다.

지금까지 쇼도 많았고 쇼 가운데도 대결의 형태를 빌어서 프로그램이 구성된 것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

「맞수 TV 최강전」도 그전에 보아왔던 다른 많은 쇼들과 대동소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뭔가 이봄에 신선한 충격 내지는 뭔가 저지를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제작진, 출연진 모두가 한 몸이 돼서 한번 붙어보자고 쇼에 한판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 제작진이 모두 모여서 「맞수 TV 최강전」의 탄생을 준비할 때는 적지 않게 고민과 회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각 방송사마다 많은 쇼들이 제작되고 어느 하루도 쇼가 없는 날이 없는 이 시대에 과연 뭘 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청률은 잘 나올까? 요즘같은 자유 채널시대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깨질 때 깨지더라도 일단 부딪쳐 보자는 최성인 프로듀서의 '고고(go go)전법'과 스태프들의 왕성한 식욕에 버금가는 의욕은 당연히 물러설

맞수의 대결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거기에 MC 김승현의 재치와 익살스런 진행이 덧붙여져서 우정어린 한판 승부는 재미를 더해간다.

수가 없었다.

방송시간 목요일 7시. 쇼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넘볼 수도 있지만 일주일 중에 가장 나른하고 지루한, 한 주에서 빼고 싶은 목요일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만 봐도 앞으로 주목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다.

당찬 프로듀서한테는 황당한 MC가 어울린다(?)는 방송가의 법칙대로 큰바위 얼굴로 닉네임이 붙은 김승현은 누가 뭐래도 가장 잘 어울리는 '맞수 TV 최강전'의 인상을 준다. 머리 좋은 것과 머리 큰 것은 비례하고, 너무 웃기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어서 머리가 커졌다는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며 밉지 않은 얼굴에 항상 익살스런 웃음을 띄고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개그와 함께, 그가 목요일 저녁에 같이 합류하기로 한 것도 최성인 프로듀서와 배짱이 맞았고 일단 '밀어 붙이자!'로 발전해 목요일 7시라는 섬을 점령하기 위한 긴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맞수 TV 최강전」의 특색은 무대에서부터 잘 나타난다. 지금까지 있어온 다른 쇼무대와는 달리「맞수 TV 최강전」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아이디어를 스포츠에서 찾고 있다. 일단 전체 세트는 야구장의 분위기로 좌에서 우로 빙 둘러가며 관람석이 놓여 있고, 지붕은 국민학교 운동회에

「맞수 TV 최강전」은 모든 아이디어를 스포츠에서 찾고 있다. 두 스타의 일대일 대결의 게임쇼를 주축으로 각각 세 명의 지지자들과 코믈소팀 들소팀을 이뤄 젊음과 재치 그리고 우정의 키재기를 펼친다.

서 많이 쓰이는 커다란 천막 형태로 설치했다. 그리고 코너에서 코너로 넘어가는 로고는 권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응용했고, 오프닝은 올림픽 성화를 응용해 그날의 출전 스타가 함께 성화대에 점화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더욱이 특이한 점은 그날의 승자에게 꽃다발이나 메달이 아닌 진짜 챔피언 벨트를 준다는 거다. 물론 챔피언 벨트가 커서 아직 허리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이한 건 사실이다.

전체적인 구성은 스타들의 일대일 대결의 게임쇼가 주가 되는데 대결을 벌일 스타 두 사람이 나와 다른 세 명의 지지자들과 각각 코뿔소팀 들소팀을 이뤄 탐색전, 접근전, 체력전, 최강전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대결을 벌이게 된다.

대결을 벌이기 전에 약간의 절차가 있는 것도 이 프로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선수는 대결에 앞서 선서를 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맞수 대결을 함에 있어서 페어플레이를 할 것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전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성화 봉송이 이어진다. 성화는 SBS 개그맨 정성화가 들고 들어오는데 이는 경기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표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프닝은 올림픽 성화를 응용해 출전 스타가 성화대에 점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절대 지루하지 않은 선서와 성화 점화의 절차가 끝나게 되면 1회전 탐색전에 들어가게 된다. 일단 대결을 벌리기에 앞서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인 이 탐색전은 한 가지씩 질문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틀리거나 상대방이 문제를 맞출 경우 타고 있던 미끄럼틀의 상단부가 올라가 결국 미끄러지는 사람이 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1회

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회전판에 양선수가 앉게 되는데 이는 '되는 선수 몰아주자'(?)는 모토 아래 이긴 사람이 더 점수를 받아가는, 재미를 주기 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차전인 접근전 또한 다른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 잘볼 수 없는 형태인데 시청자들이나 팬들로부터 출연할 스타에 대한 앙케이트를 조사해 상대방 지지자들이 알아맞추는 게임이다. 지지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스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코너라는 데 매력이 있다.

3회전 체력전은 「맞수 TV 최강전」에서 가장 돋보이는 코너다. 미니 농구 경기를 펼치는 스타들의 만만치 않은 실력에 놀라기도 하지만, 가끔은 어이없는 해프닝 때문에 폭소를 터트리게 된다.

3회전은 이른바 체력전인데 「맞수 TV 최강전」에서 가장 돋보이는 코너이다. 농구 골대를 한쪽만 놓고 미니 농구 경기를 펼치는데 스타들의 체력 내지는 운동신경이 한번에 드러나는 정말 실력 대 실력으로 붙는 게임이라는 게 특징이다. 더구나 자유롭게 선수 교체를 할 수 있어서 경기를 치루는 동안 부지런히 선수를 바꾸게 되는데 한골 한골 시원하게 슛이 성공하는 것도 볼만하지만 때때로 남녀가 팀이 돼서 경기를 치를 때 내가 언제 농구를 해봤나 듯이 농구공을 들고 뛰는 여자 스타는 어이가 없다 못해 애교스럽기까지 하다. 격렬한 농구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은 땀에 젖은 그 모습 그대로 벤치에 앉아 경기에 대한 뒷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모습 또한 그 어느 쇼 프로에서 볼 수 없는 인간적이고도 애정이 넘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선수들의 숨이 막 정상으로 돌아올 무렵 이어서 4회전 최강전이 벌어지는데 속담을 알아 맞추는 퀴즈형 게임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이른바 순발력과 재치 테스트. 게임 방식은 마스터지 형식으로 벌어지는데 이때쯤 되면 그날의 맞수는 없어지고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양팀이 합동작전을 펴서 막바지 점수 올리기에 열을 올리게 된다.

허접지접 4라운드까지 끝나게 되면 모든 경기가 종료되는 게 보통인데 막판 뒤집기가 이어진다. 시청자들은 열심히 대결을 벌였으면 결과가 좋게 끝나야지 무슨 막판 뒤집기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살이 모두 뜻대로 노력한 대로만 되면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재수도 있고 운도 있어야 그런대로 감칠맛 나는 인생 아니냐"는 그럴듯한 변명을 내세우는 최성인 프로듀서의 말대로 막판 뒤집기는 그야말로 재수만 좋으면 완전히 그날 점수하고는 상관없이 승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대결이 끝나게 되면 분명 점수차가 생기고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렇지가 않다.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눈여겨 보는 시청자는 알테지만 분명 타이틀 그대로 맞수끼리의 한판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승자가 없다. 대신 스튜디오에 남는 건 우정과 사랑과 진실이다. 땀에 얼룩이 지고 한점 한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안 맞수 대결을 벌이러 나온 스타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승부욕, 경쟁심보다는 친근감과 우정이 더 생긴다는 것이 한결같은 말이다. 바로 이 점이 최성인 프로듀서가 프로그램에서 노리는 점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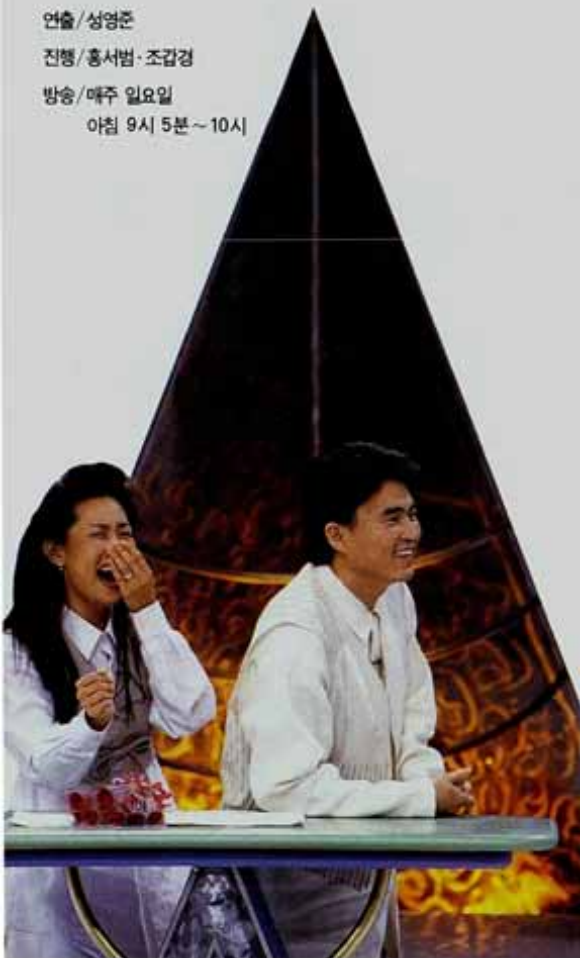
"스타 중의 스타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스타죠. 그들의 깨끗한 한판 승부 속에 우정을 심어 보겠습니다. 물론 팬들과의 우정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신선한 이 봄에 「맞수 TV 최강전」은 어쩐지 예감이 좋다. 확실한 의지, 절묘한 진행에 웬지 초반부터 '궁꽉'이 잘 맞아 떨어지는 「맞수 TV 최강전」은 이 봄에 확실하게 프로그램 중의 스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혼자만의 생각일까? 자, 어쨌거나 승부는 시작됐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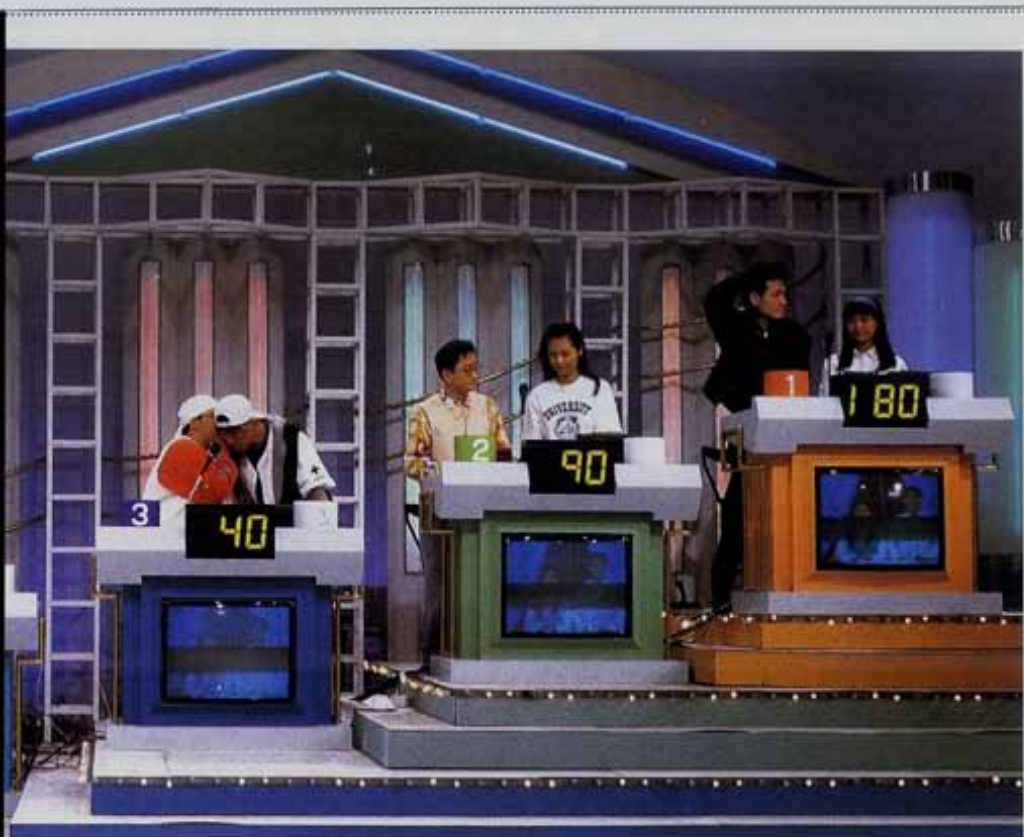
글/최용욱·방송작가
사진/신동준

열심히 한바탕 뛰고 난 뒤 느끼게 되는 서로에 대한 친근함과 우정. 「맞수 TV 최강전」의 매력은 바로 이것이다. 결국 진정한 승자는 깨끗한 한판 승부를 펼친 스타들의 성실성과 진실함이다.

「전격! 테크노 퀴즈」 컴퓨터 시대의 새로운 도전

연출/성영준
진행/홍서범·조갑경
방송/매주 일요일
아침 9시 5분~10시

'시대가 달라지면 방송도 바뀌져야 한다.'

무슨 거창한 얘기가 아니다. SBS-TV 「전격! 테크노 퀴즈」를 보면 저절로 당연한 말이란 생각이 든다. 봄철 개편으로 새로 시청자들을 찾는 「전격! 테크노 퀴즈」도 지금껏 TV가 끝없이 반복해온 퀴즈 프로의 하나다. 그러나 모습과 내용과 제작방식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새롭다.

현대가 컴퓨터 시대임을 부인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무자동화는 물론 일상 생활에까지 이젠 컴퓨터가 자리잡고 있다. 어린시절을 전자오락실에서 보낸 많은 아이들이 자라 청년이 됐다. 따라서 사고도 눈도 의식도 소위 '컴퓨터화'된 시대에 우린 살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TV프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음을 「전격! 테크노 퀴즈」는 알고 있는 듯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퀴즈 프로를 TV에서 만든다는 건 쉽진 않다. 연출자, 출연자, 진행자 그리고 시청자가 모두 기존의 문제를 읽어주거나 그림을 보여주는 데서 탈피해 컴퓨터 마인드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껏 TV도 부분적으로만 시도를 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볼 때 「전격! 테크노 퀴즈」야말로 하나의 모험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그것이 가치있고 바람직한 모험이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큰 걱정이 없음은 첫회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를 이용해 제작하는 「전격! 테크노 퀴즈」. 컴퓨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프로는 분명 가치있고 바람직한 새로운 모험이라고 여겨진다.

출연진이나 진행자 모두 컴퓨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처음엔 다소 어리둥절하다가도 녹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매력에 빠져들어 오히려 끝나기를 아쉬워 할 정도다.

제작과 방송에서부터 느낄 수 있다.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신혼의 단꿈을 간직한 채 진행을 맡은 이 프로는 일요일 아침 9시 5분에 게으름 피는 시청자들을 TV앞으로 불러 모은다. 우선 신선한 형식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속에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문제들을 눈과 손발로 따라가다 보면 55분이 금새 지나간다. 제작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2명씩 4개조인 8명의 연예인 출연자들도 처음에는 다소 어리둥절하다가도 녹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빠져들어 끝을 아쉬워 한다. 진행자도 마찬가지다. 방청객들도 "다양한 포맷으로 전개되는 각 코너가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어 재미있다"며 정신을 판다.

정말 그런지 첫 코너부터 살펴보자. 「전격! 테크노 퀴즈」는 '도미노 게임'으로 시작된다. 테크노 스타멀티비전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도미노가 나타나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 맞추는 게임이다. 과거 숨은 그림 찾기의 컴퓨터화인 이 코너는 컴퓨터 시대의 날카로운 눈을 요구한다. 하나 둘씩 무너지는 도미노를 보며 재빨리 그속에 담긴 그림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어 펼쳐지는 '돌아가는 삼각주'코너는 흔히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소재다. 서울역이나 시청광장 건물 한편에 보면 삼각동이 돌아가고 그때마다 그림이 번갈아 나오는 광고판을 볼 수 있다. 이를 컴퓨터 그래픽에 이용, 빨리 돌리면 출연자들이 그림을 찾

아 맞추는 게임이다. 컴퓨터 화면에 적응력을 알아보는 코너이기도 하다. 빠른 눈썰미가 요구되는 스피드가 필요하고 스포츠 상식이 있어야 풀 수 있다.

'열전, 가위 바위 보'는 앞의 두 코너와 달리 컴퓨터와 사람이 직접 대결을 벌인다는 점에서 진짜 컴퓨터 퀴즈라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상대로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기면 힌트가 하나씩 나오고, 그 힌트를 근거로 연상되는 영화 제목이나 노래 제목 같은 문화상식을 알아 맞춘다. 여기엔 재빠른 계산과 상식이 없으면 인간이 컴퓨터에게 지고 만다.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가위 바위 보를 내는지 안다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직 그것을 아는 사람은 프로그래머밖에 없다.

이렇게 한차례 열전을 벌이고 나면 비누방울이 화면에 나타나 쓸만한 글자만을 모으도록 해준다. '비누방울 팡팡'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비누방울 하나하나에 글자가 쓰여있다. 그 가운데 쓸데없는 글자를 골라내고 완성된 속담이나 격언 또는 낱말을 찾아내는 스피드 게임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없는 글자는 터져 없어지지만 그만큼 점수도 낮아져 컴퓨터 시대에는 더욱 시간이 귀중한 재산임을 강조해준다.

여섯번째 코너인 '테크노 오락실'은 전자오락이다. 떨어지는 폭탄을 요리조리 오래 피하는 흔한 게임이지만 두 명중 조정하는 한 명이 눈을 가린 채 파트너의 지시를 따른다는 점에서 호흡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만화속에서 비논리를 찾고 그 속에서 힌트를 얻어 추리로 정답을 맞추는 '비논리를 찾아라'는 펜노트를 사용해 각 팀이 정답을 다 맞출 때까지 정답을 노출시키지 않아 흥미를 유도한다.

다 보고나면, 아니 함께 문제를 풀고나면 누구나 "방송에서 저렇게 컴퓨터를 이용해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 프로를 연출하는 성영준 프로듀서도 아내와 함께 방송을 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프로를 만들기 위해 그는 구상부터 무진 애를 써야했다. 우선 아직 컴퓨터에 익숙지 못한 주변 인식부터

재치와 순발력 그리고 상식이 없으면 컴퓨터에 지고 만다. 컴퓨터와의 한판 승부에 몰두하는 출연진은 쉴새없이 의논하기에 바쁘다.

스피드있게 진행되는 「전격! 테크노 퀴즈」는 더욱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 재미와 유익함을 싣고 일요일 아침을 기다리는 시청자에게 달려갈 것이다.

깨야했고 방송에 맞는 게임을 찾기 위해 오락실도 많이 갔고 책도 여러권 읽었다. 녹화현장에는 프로그래머(탑컴의 전승만 과장)가 직접 나와 게임에 맞춰 컴퓨터를 조정한다.

"컴퓨터 시대의 장점을 살려 퀴즈를 해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컴퓨터를 쉽게 접촉하도록 유도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아이템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영준 프로듀서로선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 안심은 된다. 그러나 지금부터 진짜 어려움이 남았다. 끊임없는 아이템 개발 때문이다. 일반 퀴즈 프로와 달리 컴퓨터 퀴즈 속성상 재빠른 아이템의 변화없이는 시청자들을 사로 잡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컴퓨터가 그렇듯이 「전격! 테크노 퀴즈」도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테크노 퀴즈 오락실'에서 출연자가 공격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열전 가위 바위 보'도 프

시선 집중

「전격! 테크노 퀴즈」
부부 진행자 홍서범·조갑경

"이제부터 '컴퓨터 부부'로 불러주세요"

지난달 4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합친다"며 결혼한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 신혼의 단꿈이 깨기도 전에 「전격! 테크노 퀴즈」의 진행을 맡아 일요일 아침마다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가수 부부가 나란히 같은 프로에서 진행을 맡은 건 이들이 처음이다.

두 번 정도 진행을 해본 두 사람은 자신있게 이 프로가 "유익하고 기존의 다른 퀴즈 프로와는 다르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신세대에 맞고 반드시 기성세대도 따라가야만 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컴퓨터에 익숙한 홍서범도 처음에는 당황할 정도. 빠른 컴퓨터 화면을 따라가야 하고 재치가 있

로그램의 개발이 무한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우리들 세상」 「알뜰살림 장만퀴즈」 등을 만들었던 재주꾼. 그의 관심은 늘 유익하고 재미있는 퀴즈를 만드는 데 머물고 욕심은 컴퓨터 공부를 더해서 「전격! 테크노 퀴즈」를 최고의 컴퓨터 관련 오락 프로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책도 더 읽고 해외전람회도 가보고 싶어한다.

컴퓨터 관련 최고의 오락 프로를 만들겠다는 의욕으로 성영준 프로듀서는 요즘 「전격! 테크노 퀴즈」에 푹 빠져 있다.

이런 열정이 아마 시청자들로 하여금 일요일 아침 늦잠자며 아까운 아침시간을 버리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가벼운 내기나 상품을 걸고 「전격! 테크노 퀴즈」를 풀어보게 하는 건 아닐까. 아쉬움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출연의 문을 다양화하는 모습도 함께 보였으면 한다. S

글/이대현·한국일보 문화 2부 기자
사진/서창식

어야만 출연자들을 잘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재치꾼 홍서범은 라디오에는 경험이 있어도 텔레비전 프로의 진행은 처음이다. 때문에 아내인 조갑경의 전체를 읽는 눈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녹화 사이사이 조갑경이 다음 코너는 어떻게 하자고 제안하면 홍서범은 그대로 따른다. 그래서 부부는 여러모로 혼자보다는 좋은 모양이다. 이도 결국 매끈한 진행으로 NG를 줄이고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도 얻어 장수를 누리는, 결국은 경제성을 살리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까.

MC로는 한번도 호흡을 맞춰본 적도, 연습을 해본 적도 없지만 역시 부부는 다른가 보다. 노래 「내사랑 투유」처럼 멋진 하모니가 이뤄지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

홍서범은 코너 중 개인적으로 컴퓨터와 대결해 이기면 힌트를 받아 정답을 찾아내는 연상퀴즈 '열전, 가위 바위 보'가 가장 흥미롭다고 한다. 반면 조갑경은 마지막 코너인 비논리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비논리를 찾아라'가 재미있다는 반응이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이색적인 내용과 형식에 조갑경의 센스와 홍서범의 익살까지 합친 이 프로를 시청자들이 휴일이라고 늦잠자느라 놓치면 엄청난 손해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S

여기는 현장

높은 곳에서 만드는 그림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생산'되어 나오는
스튜디오. '완성품'의 세련됨과 완벽함을
이루기 위한 방송장이들의 열정.
화려한 무대와 웃음과 환호성이 가득한
관중석 분위기에는 아랑곳없이 스튜디오의
꼭대기에서 최고의 화면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카메라맨의 날카로운 눈길이
제작 현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한다.

「순간 포착, 당신이 특종」을 녹화하는
SBS 등촌동 공개홀에서

사진/신룡준

개그맨 정선희

순발력있는 입담으로 웃음을 선사하는 재담꾼

스스로 웃으면서 살기도 힘든 세상에 남에게 '웃음'을 건네줄 수 있다는 것은 참 특별난 재주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웃음과 함께 복(福)을 건네주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개그맨들에게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른 친근함을 더욱 느끼는지도 모르겠다.

웃음을 선사하는 방법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각자 '주종목'이 있는 셈인데 SBS 1기 개그맨 정선희는 주로 '입'을 통해 그의 개그적 자질을 맘껏 펼쳐보이는 편이다.

SBS 코미디언실의 대표적인 성우로 인정받는 개성있고 폭넓은 목소리 연기는 「열려라 웃음천국」의 '천국동화' 등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고, 빠른 속도로 재치있는 말들을 무수히 쏟아내는 그의 입담은 얼마전 막을 내린 「달리는 TV 그것을 찾아라」에서 '원조의 여인'으로 맹활약하며 보여준 바 있다.

"정통 코미디를 통해 차근차근 배워가며 뿌리가 탄탄한 코미디 연기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 스타일을 고정시키기 보다는 극중의 캐릭터에 따라 잘 변신할 수 있는 연기력을 쌓을 생각입니다."

88년 여고시절 청소년 프로인 「비바청춘」의 공개무대를 통해 비공식적인 데뷔를 마쳤던 그는 현재 동덕여대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다. 욕심이 많은 덕분에 틈틈이 공부했던 일어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부끄럽지 않은 실력이고, 유화 스타일화를 그리는 그의 그림 솜씨는 취미 수준을 넘는다고.

새봄을 맞이하여 「기쁜 우리 토요일」에서 인기있는 만화에 북한말로 더빙하여 그 특유의 웃음을 선사하고, 「코미디 전망대」의 '시시비비' 코너에서 변호사 역을 맡아 연기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는 그의 94년은 코미디 연기자로서 '도약'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의 도약과 함께 우리는 개그맨 '정선희 식의 웃음'에 빠져들고 그 속에서 '복'을 찾아내는 행복한 시청자들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S

글/신선화
사진/서창식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신세대 직업관

하고싶은 일에서 최고를 꿈꾸는 열정

언제적 영화였던가. 어쨌든 10년 안쪽만 해도 우리 주변엔 어디를 가든 자주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었다. 영화를 보든, TV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소설을 읽든(대부분 통속적인 대중소설의 경우지만) 우리들 '허구 문화'의 주인공들 중에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 혹은 의사, 교수 등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주인공들은 대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이를 악물고' 공부해 성공한 인물들로 묘사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혹은 공장에 다니는 큰누나, 아니면 술집에서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애인)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화려한 삶을 좇다가 한순간의 파멸 뒤에 양심을 되찾은 후 어머니를 찾아오지만 이미 그는 아들을 애타게 그리다가 병으로 죽은 직후다. 신파조의 영화나 드라마일수록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순간과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 간발의 차이로 묘사되기 쉬운데, 이는 극적 효과를 최대한도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이긴 하지만 이같은 관계와 주제를 전혀 갖지 않는 얘기의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다. 어쩌면 TV드라마의 신경향을 이룰지도 모를 흥미있는 작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 이후 SBS-TV가 방송하고 있는 몇 편의 드라마에서는 소위 신세대 더나아가 X세대(이들 표현들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욱 강하긴 하지만)라 불리는 젊은이들의 직업이 비교적 디테일하게 묘사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드라마가 첫회부터 비교적 탄탄한 시청률을 보인 SBS 주말극장 「사랑의

향기」다. 홀어머니와 세 남매의 이야기를 중심 축으로 전개되어지는 이 「사랑의 향기」는 제목처럼 요즘 세태를 읽을 수 있는 새로운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드라마의 두 남녀 주인공 영진(최진실 분)과 준호(이병헌 분)은 우리가 늘상 드라마에서 봐었던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들은 어쩌면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혹은 여기저기서 때론 비난의 대상으로, 또 때론 관심있는 대상이나 실험적 인물들로서 간주돼 왔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드라마상에서 현재 갖고 있는 직업, 그리고 '장래 되고 싶은 희망'이 매우 특징적으로 묘사돼 있다.

이 드라마에서 영진은 애니메이션 프로덕션에서 원화를 그리는 만화가다. 준호는 지금은 고층빌딩의 유리창 닦기에 불과하지만(유리창 닦기가 뭐 어때? 이 드라마야말로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 장래 카레이서가 꿈인 젊은이다.

만화가와 카레이서의 결합이라는 설정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만화 같은 얘기라고, 드라마니까 가능한 아이들의 얘기라고 치부하기 쉬운 이들의 모습이 요즘에는 오히려 더욱 리얼리티를 확보한다. 그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 행동 반경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신세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는 단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뭐라해도 내가 가진 일 — 그것이 이 매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 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일에 관한한 그 누구의 추종도 불허할 만큼의 전문성과 철저함을 갖고 있고, 출세나 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없으며, 상대를 사랑하기 이전에 그가 가진 일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등등이 바로 요즘 신세대들의 직업관이자 애정관, 그리고 인생관인 것이다.

이 드라마의 둘째딸 혜진(전도연 분)도 그같은 신세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대학 3학년인 혜진이 좋아하는 남학생은 이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는 정치 지향

젊은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보고 싶은 스피드광 카레이서. SBS 주말극장 「사랑의 향기」에서 이병헌이 카레이서 준호 역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적인 남학생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고, 대우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수업은 빼먹을지언정 도서관 자리를 뺏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남학생이 아니다. 혜진 자신의 꿈도 얼굴도 꽤 잘생기고 집안에 돈도 부족치 않은 남학생을 만나 적당히 사랑하고 결혼해 '알맞을 만큼만' 정붙이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혜진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민구처럼 세계 각지를 돌며 배낭여행을 떠나는 것이며 좋아하는 민구(오대규 분)가 유명한 배낭여행 전문가가 되는 것뿐이다.

영진 혜진, 두 자매가 이처럼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의식을 갖게 하는 데는 어머니인 명희(김영애 분)의 역할도 한몫을 단단히 한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의 이 중년 여성의 직업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응당 자격증을 따야하고 그렇다면 이 어머니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이며 때문에 자식들도 어떠한 일을 갖든 성실히 자신의 직분에 다하기만을 바라게 된다. 바로 프로테스탄적 기질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고나 할까. 이 정신이야말로 근대 역사 이후 언제나 진보주의의 기본이 돼왔다.

중학교에 다니는 막내 아들의 장차 꿈이 의사도, 변호사도 아닌 야구선수인 것도 이 같은 신세대적 사고방식의 집안 분위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같은 사고방식은 요즘 우리 주변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사랑의 향기」외에도 요즘 젊은이들의 직업관을 드러내는 드라마들이 있다. 일요 아침드라마 「질주」와 요즘 한창 촬영중인 「영웅시대」 등이 그것.

「질주」는 CI회사, 즉 기업이미지를 창출하는 광고장이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는 드라마다. 이 작품이 묘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매력은 바로 '프로는 아름답다'이다. 그리고 치열한 라이벌 관계지만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젊은이들 모습을 통해 우리의 앞날이 매우 밝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다. 더 나아가 판사나 의사나 사장만큼 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삶도 매우 크리에이티브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

만화가. 상상과 공상의 세계를 날아다니는 매력적인 일. 「사랑의 향기」에서 영진 역을 맡은 최진실이 애니메이션 프로덕션에서 원화를 그리는 만화가로 등장해 새로운 캐릭터를 창출하고 있다.

이젠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현대 문명의 이기
컴퓨터.
「영웅일기」에서는
컴퓨터에 푹 빠져 사는
젊은이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테크노 시대의
이야기가 선보인다.

라 삐삐, 핸드폰, 팩시밀리 등 현대의 최첨단 문명 이기가 총동원되어 활동적인 신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6월에 선보일 드라마 스페셜 제2화 「영웅일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드라마는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돼버린 컴퓨터와 컴퓨터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컴퓨터의 막강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 — 소위 '컴맹'이라고 부르는 사람 — 이 바로 TV연기자들이었다. 이들이 드라마 상에서 소도구로 사용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는 모습은 아직도 어색한 경우가 많다. '신문기사도 컴퓨터로 쓰는 시대'에 기사를 쓰는 기자가 원고지와 펜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종종 코믹한 모습을 선보이기도 한다. 또한 드라마에서 검사 역으로 나왔던 한 연기자는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엔터'키만 누르는 모습을 연기하기도 했다.

「영웅일기」는 컴퓨터에 미쳐있는 젊은이들의 얘기이다. 당연히 컴퓨터 천재가 등장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컴퓨터망에 침투, 입력된 모든 정보를 파괴시키며 재미를 느끼는 악동 해커도 등장한다. 드라마가 시작도 되기 전에 충분히 가능한 상상은 이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나 연기하는 사람이나, 무엇보다도 이를 보는 사람 모두가 요즘 젊은이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완전히 '신세대용' 드라마라 할 수 있다.

왜 요즘 드라마들이 이처럼 신세대들의 묘사에 치중하는가. 그만큼 세태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 변화를 좇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기 쉽다는 위기감 때문이기도 하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재미있는 것이며 가장 재미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이들 드라마들의 등장 인물들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잡아두는 이유는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젊은이들 모습을 가장 알기 쉽게 그리고 또 가장 진솔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들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 자녀들에게 죽어라 공부만 강요하는 부모들에게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S

글/김은영·자유기고가
사진/서창식, 정문경

매거진 컬럼

21세기는 '보는 라디오' 시대

이해성·라디오국 국장대우 제작위원

이해성·41년 서울에서 났고, 외국어대 불어과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64년 동아방송 음악 프로듀서로 출발하여 음악평론가로 활동했고, 평화방송 편성제작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일요일 아침 SBS 라디오의 「세계의 음악」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5월 20일. 제13회 SBS 라디엔티어링 관계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백두산 천지 코스는 천지의 오염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포기하고 히말라야 트래킹 코스로 변경, 이미 현장답사와 기술점검까지 마쳤는데 사업담당 자회사에서 금강산 코스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는 회의다.

고성공항이 최근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 해외 참가자들도 전세기편으로 참가가 용이하고, 라디엔티어링이 침체한 금강산 관광붐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금강산 관광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자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금강산 코스로 확정짓게 된다.

자회사에서 라디엔티어링에 이처럼 열을 올리게 된 것은 2001년 라디오 수신기의 LCD 화면이 TV 수준으로 선명해져 문자방송에서 사진까지도 내보내기 시작한 후부터다. 라디엔티어링 참가자들이 LCD 화면에 나타난 지도를 사용할 수 있어 코스에 정해진 지점을 화면에 표시된 지도와 방송 안내를 받아 순서대로 빨리 찾아 코스를 완주하는 포인트 OL,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 수십개의 포스트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 안에 순서에 관계없이 찾아가 많은 점수를 따는 스코어 OL이 가능해지면서 참가 신청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자 레저 관광 상품으로 새롭게 떠오른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움직이는 영상 정보도 가능하지만 세계라디오협의회(WARC)가 TV와의 차별화를 위해 영상 정보를 자제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기회에

북미지역의 이익만 챙기는 WARC를 탈퇴하고 국제라디오협의회(IARC)를 새로 결성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위성을 통한 이동체 디지털 음성방송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가 보편화된 후 SBS 라디오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국내에서처럼 CD 수준의 음질로 수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간 라디오 전파 월경(Spill Over)에 따른 교통정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주로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90년에 결성된 WARC가 각국의 전파 정책까지도 간섭할 정도로 파워가 막강해진다.

이것은 10년 뒤인 2004년의 라디오 상황을 한번 가상해 본 것이다. 라디오 데이터 방송 RDS(Radio Data System)라는 뉴미디어 방송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10년 뒤에는 '듣는 라디오'에서 '보는 라디오'로 개념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라디오 수신기 LCD 화면에 문자와 화상 서비스가 되는 '라디오 텍스트'는 현재 유럽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RDS 방송 서비스 9종류 중 하나이다.

라디오 버튼마다 방송사가 정해져 있어 원하는 방송의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가 자동적으로 맞춰지므로 산악지역이나 타지방으로 이동해도 지방 방송사의 주파수 차이에 따라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자동 채널 조종'서비스도 있다. 현재의 이 기능은 10년 후쯤엔 좀더 개발되어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동 채널 조종이 가능하리라 본다. '프로그램 자동선택'도 RDS 서비스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방송사에 맞추어 자동으로 채널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음악, 스포츠 중계 등 프로그램 유형에 맞추어 자동으로 채널이 작동하게 하는 서비스로 수신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유형에 맞춰 놓으면 라디오가 해당 방송을 찾아낸다.

2004년에는 현재와 같은 전파의 유한성은 의미가 없어지고 채널의 물리적 확대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해져 자본력만

일러스트·김진국

있다면 마치 월간지를 발간하듯 누구나 방송사를 설립할 수가 있게 된다. 채널의 확대로 지금같은 종합 편성방식은 사라지고 채널별 고정 특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원 포맷 프로그램'이 편성의 주축을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쯤 '프로그램 자동 선택' 서비스는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게다.

FM의 EBU 표준방식에 의한 RDS 서비스는 88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후 이를 도입하거나 계획 중인 나라가 유럽지역에서 18개국에 이르고 있고 미국도 90년 뉴욕에서 서비스에 들어갔다. 우리 나라에서는 체신부 산하 전파연구소와 한국통신학회가 최근 2년 간에 걸쳐 공동 수행한 'FM 다중방송연구'에서 다중방송방식으로 RDS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정 수신방식의 PCM 음성다중방송(일본식)보다 이동수신이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럽방식의 RDS가 서비스의 질이나 산업기술 발전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범한무전, 동해실업, 해태전자, 인켈 등 12개 카오디오업체들은 방송사명과 주파수 등을 LCD에 표시하는 아주 기초적인 RDS 수신기를 개발, 수출하고 있어 우리도 RDS 서비스 시대에 들어선 셈이다.

아직 케이블 시대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여서 케이블 오디오가 다소 생소한 느낌도 주겠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케이블 TV보다 케이블 오디오 서비스가 더 활발한 것으로 보아 10년 이내에 공중파 라디오의 경쟁 채널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음악을 장르별로 세분해서 수십개의 채널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오디오 세트 임대 서비스까지 곁드린다면 가입 가구수는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시동은 이미 걸려있는 상태다. DAB 방송이나 FM에서의 RDS 서비스는 유럽지역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2004년에 가면 현재의 AM 방송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TV가 등장했다고 해서 영화가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AM도 제2기인 AM 스테레오 방식에서 제3기 형태의 AM 디지털 방식의 방송으로 바뀔 것이다. 따라서 AM 디지털, FM, DAB 방송, 케이블 오디오 서비스가 공존하는 그야말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치열한 청취자 서비스 시대로 돌입할 것이 확실하다.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 받은 데이터를 타매체나 컴퓨터 등에 전송, 활용하는 미디어 믹스 역시 활발할 것이다.

이처럼 2004년의 SBS 라디오는 기존의 라디오 AM 채널 외에 라디오의 뉴미디어를 모두 수용, 방송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문자기능까지 추가되어 가장 지적인 매체로 우뚝설 것이다. 수용자들은 라디오를 통해 지적욕구를 충족하려 할 것이고 이런 수용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라디오 실무진의 분야별 고도의 전문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더구나 다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한 채널의 독립 경영에서 제작, 진행을 맡아야 하는 채널별 원맨 시스템으로 구조개편이 이뤄질 것이다.

2004년 5월에는, 10층 복도 의자에 앉아 월급 인상 소급분이 온 라인으로 넘어갈 것인가 별도 현금으로 줄 것인가를 화제로 삼아 한담을 나누던 1994년 5월이 그리워질 것이다. S

프랑스의 '음악대사'
파트리샤 카스 서울공연

에디트 피아프 이후 최고의 상송가수로서 프랑스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파트리샤 카스의 서울 공연이 SBS주최로 이루어집니다.
폭발하듯 열정적인 목소리를 지닌 파트리샤 카스는 88년에 발표한 음반 「블루스를 부르는 소녀」가 유럽 전역에서 1천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그동안 발표한 4집의 앨범이 모두 플라티넘 앨범, 다이아몬드 앨범을 기록했으며, 관능적인 몸짓과 역동적인 무대 매너로 관중을 사로잡는 마력을 지니고 있어 라이브 공연의 귀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대중음악 무대로부터의 쇄도하는 출연 요청으로 프랑스의 '음악대사'라고 까지 불리는 파트리샤 카스. 그의 공연은 세계 정상에 위치한 음악인들의 라이브 무대를 갈구해 온 팝 음악 애호가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일시: 94년 5월 9, 10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CMI 518-7343

예매처
시내 각 유명 예매처

예매권
S석-40,000원
A석-30,000원
B석-20,000원
C석-10,000원
D석-5,000원

'94 SBS 연중 캠페인 '어린이를 바르게'

●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기

잃어버리고도 찾아가지 않는
많은 물건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 친구 사귀기

아이들에게
친구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편애

무심결에 내보이는 치우친 사랑에
더욱 아파하는 손가락(자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빠의 일터를 보여주세요(남대문)

자녀의 가슴에 최선을 다하는
아빠의 모습을 담아주세요.

부전자전(父傳子傳)

자녀의 모습,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남기

결코 멈추지 않을 '새로움'에의 열정

'모든 참다운 삶은 만남이다'라는 말이 있다.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하나의 만남을 통해 삶을 가꾸어 간다는 말일 것이다.

프로듀서라는 직업을 갖고 20년을 일해오는 동안 물처럼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는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다. 만남이란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미리 예측할 수도 없는 숙명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는 자신이 PD로 살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으로 그런 소중한 만남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남보다 많이 누려온 점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만큼 그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만남의 순간들을 즐기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이남기.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이름은 특정한 한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 나라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의 발달사와 맥을 같이 하는 보통명사에 가깝다.

20년,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불 면 한 점에 불과할지도 모르나 우리네 인생에서 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그 세월 동안 텔레비전이라는 물건 자체는 초창기의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 신기한 그림상자에서 이제는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너무나 일상적인 전자제품쯤으로 전락해서 그 희소가치가 없어졌다고 해도, 훌륭한 정보전달 매체로, 그리고 영웅과 스타를 창조해내는 대중조작의 최적 매체로서 보통 사람들 위에 당당히 군림하는 속성 만큼은 나날이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늦게 들어오는 가족 걱정을 하지 않아도 고장난 TV를 고치러 올 서비스요원이 늦으면 신경질이 나다 못해 초조해지기까지 하는 이 시대, 바로 TV시대라 할 만하다.

이남기는 TV시대가 만들어 낸 이 시대의 대표적 프로듀서중 한 명이다. 그러나 그는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온

쪽에 가깝다.

49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광주의 전통 있는 가톨릭 학교 사레지오 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난 후 그는 별 망설임없이 방송사 시험을 치렀고, 기자가 되느냐 PD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도 또한 별로 고민하지 않고 PD쪽을 선택했다. 방송사라는 데가 뭔가 '꺼리'가 무궁무진한 곳처럼 생각되었고 기자보다는 프로듀서라는 명칭이 당시의 그에겐 더 생소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쇼 PD의 절대 조건이며 그의 천성이라고 해도 좋을 '신선하고 새로운 것 밝힘 증세'가 이미 그 때부터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말이겠다.

아닌게 아니라 TBC 프로듀서로 입사한 74년부터 KBS를 거쳐 SBS에 안착한 오늘까지 그가 만들어낸 이름난 프로그램들은 일일이 손으로 꼽는 것이 고역일 지경이다. 20년 쇼 연출자 생활에서 7년을 바친 쇼 프로의 대명사 「쇼쇼쇼」를 비롯해서 「100분쇼」를 4년간 연출했으며 「가요무대」 「가요톱 텐」「자니윤 쇼」등, 후배들이 붙여주었다는 '황태자'란 호칭에 걸맞게 그는 항상 그 시기 최고의 프로그램들만 만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가리켜 'PD로서 자신의 팔자가 괜찮은 모양'이라고 간단히 넘겨버리지만 그것을 단지 운이 좋았다는 말로 간단히 넘겨버릴 수 있을까. 그를 잘 아는 주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실험제작 욕구, 즉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는데 젊음을 바쳐온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평가한다.

「100분쇼」를 맡고 있던 84년에 우리 나라 방송 사상 최초로 일본 오사카까지 날아가 위성으로 쇼프로그램 생방송을 해냈고, 88년엔 「지구촌 1988년」이라는 제목의 특집으로 아침 7시 반에서 오후 2시까지 무려 7시간 반 동안 전세계를 연결하는 위성 쇼를 보여줬으며, 올림픽 때는 10만 명 가까운 관객을 앞에 두고 프리올림픽쇼를 해냄으로써 방송 사상 최다 관객 동원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자니윤 쇼」로 우리 방송에 토크쇼의 봇물을 터지게 한 장본인도 바로 그이며 최초로 지방국에서 제작하여 서울로 보낸 프로그램으로 기록될 「신혼은 아름다워」를 기획한 사람도 그다.

SBS로 옮겨와서는 개국 축하쇼인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기획하고 직접 연출함으로써 서울방송의 탄생을 최초로 시청자에게

알린 프로듀서로 기억되었는가 하면 요 몇년새 방송에 밀어닥쳤던 시트콤 열풍도 다 그의 팀에서 주도해낸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최초로 해낸 일들이 꽤이나 많다. 식당 같으면 '원조 아무개'하고 간판을 내걸어도 여럿 걸었음직 하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더욱 고달프고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사람의 손과 머리를 쓸 일이 많다는 뜻이고, 지켜보는 이의 시선도 만만치 않을 것

우리 나라 방송에 토크쇼의 붐을 가지고 온 「자니윤 이야기쇼」(왼쪽 사진)와 시사코미디 프로로 그 위상과 인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코미디 전망대」(오른쪽 아래 사진) 역시 그의 '새로움을 찾는' 실험제작의 욕구가 맺은 알찬 열매이다.

이기 때문이다. '최초'를 '최고'의 수준으로 성공시키는 것, 이남기의 20년은 그것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때로 미로와도 같고, 난마(亂麻)와도 같은 방송장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늘 책을 뒤적이고, 아이디어에 골몰하며 20년이란 세월을 보낸 탓인지 그의 얼굴은 나이보다 한참 아래로 보여 그가 서울 방송의 쇼 오락 파트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잠시 의심하게 만든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제 한 발 비켜 서서 좀 느긋하게 살아도 될 법하건만 그의 체질은 도무지 그런 느긋함과는 거리가 먼 듯하다. 일하는 사람의 기질을 크게 캐스트 기질과 스태프 기질로 나눈다면 그는 스태프 기질의 전형으로 쳐도 될만한 인물이다.

일선 디렉터에서 물러나 기획자의 위치에 앉아 있는 이즈음 그의 그런 스태프 기질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테면 예능국 쇼 오락 파트에 소속된 후배 프로듀서들을 거느리는(?) 그의 방식이 그렇다.

그는 후배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아끼지 않는 점로 소

문이 났다. 마치 '나의 할 일은 바로 그것'이라는 듯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후배들에게 전파시키고 그들이 연출 일선에서 그것을 마음껏 써먹도록 하는 까닭이다. '일에 미친 사나이'로 불릴 만큼 온몸에 일 욕심의 그림자를 잔뜩 드리우고 다니면서도 결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숨 막히게 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그가 갖고 있는 덕목이다.

그런 저런 사실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늘 내세우는 일에 있어서의 중심적 과제는 다른 것이 아닌 '인간적 신뢰'이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과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 선배와 후배, 동료 간에 믿음과 우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조직과 그 조직이 해나가는 방송은 시청자들도 금방 알아채고 만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그래서인지 주위에선 그를 '인간적이고 편안한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 말은 자신과 만난 사람들의 특성과 인격을 일일이 알아주고 챙겨주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뛰는 사람에 대한 당연한 찬사일 것이다.

이처럼 일에 있어서는 새롭고 특출한 면을

수 많은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쇼 프로듀서라는 직업. 작곡가 박춘석(왼쪽)과 자니윤(오른쪽)도 그와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며 두터운 친분이 쌓인 사람들이다.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생활인 이남기로 돌아가면 '평범이 최상의 진리'라고 믿는다는데, 아닌게 아니라 사석에서 대하는 그에게는 PD, 그것도 쇼 프로듀서 하면 떠올리기 마련인 특유의 체취가 별로 없다. 듣기 좋을 정도로 남아있는 남도 사투리 억양 하며 한없이 순해 보이는 눈빛, 이쪽의 질문에 성의를 다하여 만족스런 대답을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저 편하고 만만한 외삼촌쯤을 대하는 듯 마음을 놓게 하는 바람에 처음에 예정했던 인터뷰 시간을 한 시간 이상이나 넘겨버릴 정도로 말이다.

이남기의 이런 성품은 가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그의 아내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은 아버지가 밖에서 이름 석자만 대도 다 아는 유명한 쇼 프로듀서라는 것을 별로 실감치 못하고 산다.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 달다 쓰다 별 말이 없는 아내와는 5년이나 연애를 한 끝에 결혼했는데 프로그램 만들 때는 늘 새로운 것을 찾지만 사람 사귀는 것 하나는 신중하고 오래 가는 걸 좋아한다며 그는 웃었다. 지난 84년 말부터 여섯달 동안 호주 시드니에서 보낸 언론연구원 해외연수 시절이 그나마 아내에게 충실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다고 그는 기억해낸다. 그때 귀국길에 함께 세계여행을 하는 등 신혼 기분을 맘껏 내며 봉사한 것으로 지금껏 가족에 대한 불성실(?)을 상쇄시켜 왔는데, 요즘 슬슬 약효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면 그 때 또 한번 같이 떠나보자"는 말로 예방 백신을 주입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는 또 한번 환하게 웃는다.

젊었을 때는 물론 40대 중반에 이른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일감이 손에서 놓여나

□ 이남기 프로듀서 연보

1949년 12월 10일 전남 영암 출생
1962년 광주 서석국민학교 졸업
1965년 전남중학교 졸업
1968년 사레지오 고등학교 졸업
1972년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1974년 TBC 공채 11기로 입사
1976년 서울대 신문학과 대학원 졸업
1980년 KBS 입사
1981년~1985년 「쇼쇼쇼」「가요톱 텐」 연출
1985년 생방송 광복특집 위성쇼 연출(서울－오사카)
1985년~1987년 「100분쇼」 연출
1987년~1988년 「가요무대」 연출
1988년 1월 1일 위성 생방송 「지구촌 1988」 연출
1988년 5월 「프리올림픽쇼」 연출
19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 개막축제 「강상제」 연출
1989년~1991년 「자니윤 쇼」 연출
1990년~1991년 「신혼은 아름다워」 연출
1991년 SBS 입사
1991년 12월 9일 SBS 개국 축하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출
제작 2부장으로 「자니윤 이야기 쇼」
「코미디 전망대」 등의 토크 프로그램과
쇼 오락 프로그램 기획
1993년~현재 SBS TV제작국 부국장대우 예능 총괄

는 적이 별로 없으니 그에게 있어서 건강이 일을 받쳐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이 건강을 지켜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일에 대한 신명없이는 버텨낼 수 없었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올 여름에 운이 좋아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면 가능한 한 신문 잡지는 물론 방송도 없는 곳에 책을 한보따리 싸들고 가서 읽어 치우고 오고 싶다는데, 그가 가끔씩 그런 식으로 피로를 푸는 것으로 방송장이가 갖고 있어 봤자 좋을 것이 없는 일상의 찌꺼기를 털어내곤 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금방 그가 휴가를 갈 수 있게 되기를 빌어주는 심정이 되고 만다.

20년이 넘는 오락 PD생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나름대로 방송관 같은 것이 있을 법하다고 운을 떼자 그는 짧은 말로 그것을 뭉뚱그려 보여준다. 방송장이에게 관(觀)이 있다면 '방송 그 자체'가 바로 관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모든 것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방송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하고 바뀐다. 한번 나간 방송은 이미 구시대의 산물이 되고 만다. 그러니 늘 가슴 속에 새로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이리라. 새 프로그램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시청자와 그 시청자가 보내는 시선과 만나야 하는 것이 프로듀서의 운명이므로.

그의 인생에서 쇼를 빼버린다면 무엇이 남을까. 나름대로의 PD론을 펼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의 얼굴이 평생 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를 자연히 알 듯하다. 이름이 남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마는, 그는 그런 것에 무심한 듯하니 이젠 그를 가리켜 '진짜 방송꾼'이라고 불러도 손색없지 않을까 싶다. S

글/윤미선·자유기고가
사진/서황식

카메라맨 서득원

영상에 묻어나는 따뜻한 인간미

언젠가부터 서득원을 질투하게 되었다. 글쓰는 송지나가 그를 내놓고 사랑하면서 비롯된 나의 질투는 아무도 눈치 챈 사람은 없지만, 여태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송 작가의 사랑이 아직도 식을 줄 모른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이 서득원의 인간 풍모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7, 8년쯤 전인가? 송지나는 "서득원 아저씨가 참 좋다"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가 거론될 때면 그저 빙긋이 웃는 지경으로까지 발전했으니까 평소 송 작가를 사모하는 나로서는 업무의 영역이 서득원과 확연하게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왜 송지나는 서득원을 좋아하는 것일까? 우선은 '열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문화방송 시절 서득원과 「인간시대」를 딱 한 편 같이 만들었다. 그때 나는 "그만 찍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별로 한 일이 없었다. 어떤 카메라맨은 그것이 '잘못된 노예 근성'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1986년쯤의 일이었으니까 꽤 오래 되었다. 우리는 전라북도 부안의 조그만 암자에서 함께 일했다. 절 앞에 버려진 아이 다섯을 가사 자락에 휘감고 사는 할머니 스님이 「인간시대」의 주인공이었다. 환갑을 넘긴 스님은 좀처럼 보기 힘든 '노인 장난꾸러기'로 열흘 내내 우리를 희롱하며 즐거워 했다. '놓쳐서는 안 될 장면'을 몰래 해버리고서는 아쉽고 섭섭해 하는 우리 얼굴에다 "깔깔깔" 해맑은 웃음을 뿌리곤 했다.

새벽에 소나기가 한차례 지나간 봄날 아침, 서둘러 아침을 먹고 절에 당도하자 스님의 말씀, "법당에 물이 새길래 지붕에 올라가 땜질 좀 했더니 팔다리 쑤시네."

우리는 할머니 스님이 후들후들 떨며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모습, 비를 맞으며 기와 틈새를 막는 장면 등을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놓쳐버렸는데 그런 일이 줄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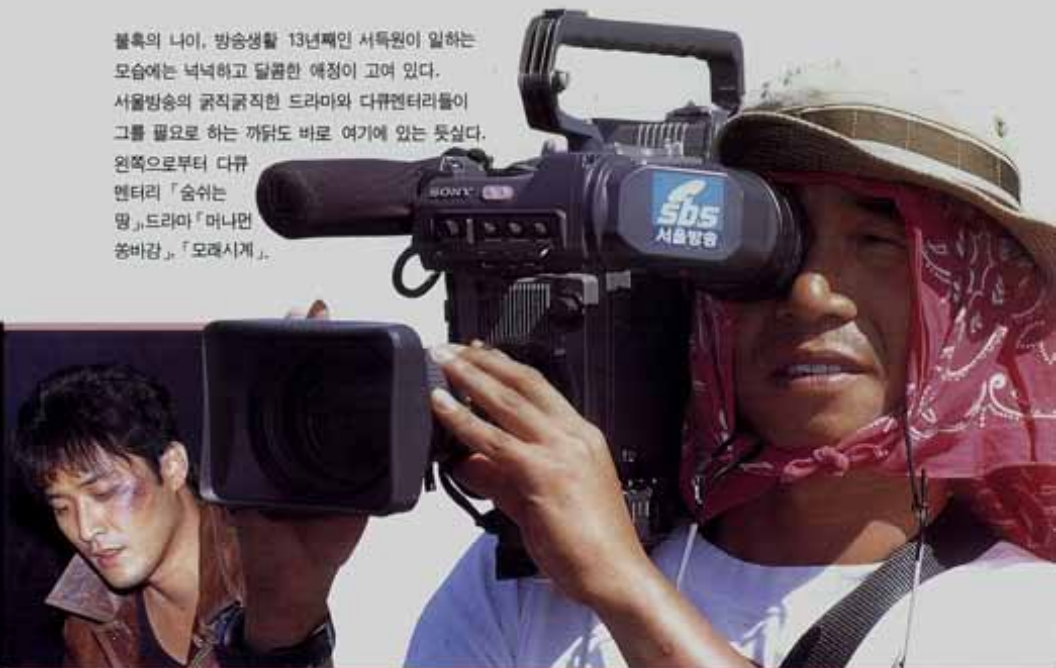
그러나 서득원은 그 상황을 즐겼다. 스님과의 숨박꼭질에서 술래를 면하고 장독 뒤에 숨고 싶어했다. 우리는 점심도 시켜 먹었다. 절 밖으로 나가 밥먹는 사이에 스님은 온갖 하이라이트—숙제 안한 아이 벌 세우기, 거울보고 당신 손으로 머리깎기, 구멍난 아이들 양말 기우기 등등—를 다 실시해버리기 때문이었다.

짜장면을 시켜 절 마당에서 먹으면서도 서득원은 곁눈질을 멈추지 않다가 슬그머니 일어서면서 오른손을 펜싱선수의 기본 자세처럼 구부리면 오디오맨이 카메라를 얹어주었고, 그러면 슬금슬금 부엌으로 법당으로 살림방으로 그의 카메라가 다가가는 것이었다.

스님은 부엌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다가, 법당에서 졸다가, 뒤곁에서 아이들 머리통에 군밤 주다가 서득원의 그물에 걸렸다. 드디어 손을 든 스님은 돼지고기 사러(한달에 한번 아이들 특식으로, 스님은 석쇠에 구워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었는데 당신은 입맛도 보지 않았다)갈 때도 우리를 대동했다.

이것은 절대 '노예 근성'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프로듀서를 능가하는 감독 의식이며 그런 서득원을 건방지다거나 주제를 모른다고 비난하는 연출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송지나가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는 부분은 단순히 그가 열심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서득원이 일하는 모습에는 넉넉하고 달콤한 애정이 고여 있다. 할머니 스님과의 숨박꼭질이 끝나고 짐을 쌀 때 서득원은 "절 아이들과 어디라도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래서 새우깡 사과 초코파이 등을 사고, 아이들을 봉고차에 꽉꽉 눌러 태운 채 변산반도로 나들이를 떠났다. 절 마당에서만 놀던 아이들은 바닷가를 천방지축 내달렸고 서득원은 그 속에 섞여(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리 궁둥이로 뛰어다니며) 마냥 즐거워했다. 그는 일할 줄 알고, 놀 줄 알고,

불혹의 나이. 방송생활 13년째인 서득원이 일하는 모습에는 넉넉하고 달콤한 애정이 고여 있다. 서울방송의 굵직굵직한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들이 그를 필요로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듯싶다. 왼쪽으로부터 다큐멘터리 「숨쉬는 땅」, 드라마 「머나먼 쏭바강」, 「모래시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가 카메라맨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 모른다. 언뜻언뜻 충무로 시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생각나는 게 없다. 그러나 그가 '장충동 독수리'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달고 장충체육관 일대를 '주름'잡았다는 얘기는 기억한다. 나는 속으로 '장충동 오리'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지는 않았다.

한때 서득원이 밤골목을 헤집고 다녔던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는 그 시절을 회고할 때 무용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때때로 별일을 다 겪게 되는데 인연이란 말할 수 없이 신비하고 교묘한 것'이라며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눈으로 편안하게 바라본다. 마치 숲 속의 곤충을 바라보듯. 자기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좀 겁난다.

서득원에게는 장충동 독수리답게 '오야붕 기질'이 있어서 많은 후배들이 그 주위에 있고 그들은 모두 나와도 친밀하다. 문화방송에서 오디오맨을 하다 SBS프로덕션 카메라맨으로 온 연석돌과 유종수가 그러하고 강릉문화방송에서 카메라맨으로 일하다 온 이영철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서득원 패거리'의 일원이었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월화드라마 「결혼」이 한참 인기 절정일 때 9층 편집실에서 「결혼」의 카메라맨인 이영철과 서득원을 자주 보았다. 그때마다 이영철은 즐겁게 야단을 맞고 있었다.

"야, 이 커트가 틸다운했는데 다음 커트가 또 틸다운되고, 이게 뭐냐?"

서득원은 야단을 부드럽게 잡치는 재주가 있으며 그가 키운 후배들은 대부분 10년짜리 정도의 중·장기 프로젝트의 결과

다. 지금은 SBS 프로덕션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유종수와 연석돌을 볼 때마다 '나는 그동안 후배들에게 무얼 해주었나'하는 자괴감이 든다.

서득원은 건강 지상주의자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굳게 믿으며 몸관리를 잘한다. 샤워를 하고 나면 알몸으로 팔굽혀펴기를 삼십 번쯤 꼭 한다. 그러나 그의 건강비결은 과격한 운동에 있지 않다. 저녁식사 후 반바지 차림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시골길을 산책하는 모습은 아주 넉넉하고 편안해 보인다. 세상 욕심과 갈등의 지게를 내려놓고 홀가분한 소처럼 어슬렁거릴 때 자연의 맑은 기운이 그의 몸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다. 단전호흡이나 기공을 하지 않아도 그는 일상의 평온으로 강한 힘을 늘 축적하는 것이다.

서득원의 유일한 적은 '맛있는 음식'이다. 「숨쉬는 땅」을 함께 만들 때 그가 입에 당기는 음식을 정량보다 더 먹으며 난처해 하는 모습을 여러번 목격했다. 특히 전남 벌교의 반디네 집에 촬영을 가면 현미밥, 야채무침, 꼬막, 장어구이 앞에서 서득원은 "안되는데 안되는데" 하면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한번 과식하면 다음 끼니를 반드시 소량으로 조절하여 과식의 후유증을 극소화시켰다.

「여명의 눈동자」「머나먼 쏭바강」을 무사히 끝낸 것은 그의 정신력과 함께 이러한 건강관리가 큰 몫을 했음이 틀림없다. 술도 맛을 들여야 늘 퍼마실 수 있는 것처럼 건강도 맛을 들인 사람이 챙긴다. 서득원은 요즘 한달에 한두 번의 술자리로 주량도 대폭 줄이고 "건강! 건강!"을 외치고 있다.

두 살 아래인 부인 이양회 씨는 "아마 술 사주는 사람이 없나 보죠"라며 웃었지만 서득원과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그가 지금 술잔을 멀리하는 것은 10년 후, 20년 후에도 끄덕없이 카메라를 어깨 위에 올려놓겠다는 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때로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백치미까지 보이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숲 속에 숨어 있는 맹수처럼 무섭고 큰 꿈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빠가 독수린지 오리인지 잘 모르는 아홉살짜리 큰 아들 동욱이는 며칠 전 서득원이 경주로 떠날 때도 출장 그만 가라고 왕왕 울어댔다.

"사장님 면담해서 우리 아빠 출장 못가게 할테야."

동욱이가 이런 소리를 하며 울면 내일 모레가 마흔인 부인 이양회 씨도 콧물을 훌쩍거린다니 서득원은 참 대단한 가장이기도 하다.

지금 그는 경주에서 김종학 프로듀서와 함께 송지나가 글을 쓴 SBS 창사 특집드라마 「모래시계」를 만들고 있다. S

글/윤동혁·TV제작국 부장대우 제작위원

사진/신동준

더욱 선명하게 보다 가까이
SBS-TV가 찾아갑니다

가시청권이 넓어졌습니다

철원
춘천
홍천
강화
파주
가평
횡성
인천
원주
안산
제천
충주
당진
진천
온양
음성
서산
천안
예산
홍성
청주

넓어진 SBS시청권역, 선명해진 「채널 6」

- 이미 완공된 8개의 간이 TV 중계소에 이어 관악산중계소 (UHF 27)와 용문산중계소 (UHF 55)가 준공되었습니다.
- 지형적인 난시청이 완전히 해소되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 뿐만이니라 가시청권역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SBS문화재단 설립」

- 한국방송사상 첫 공익재단, SBS가 실천합니다.
- 매년 세전이익의 15%를 재단에 출연합니다.
- 과학기술, 학술, 언론발전의 일익을 담당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 시청자상담 : 369-1090~3

• 다음지역 일부에서는 UHF 채널로도 선명한 SBS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관악산 남부(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UHF 27 • 양평군, 여주군, 이천군 UHF 55 • 동두천시 UHF 21 • 광명시 UHF 44 • 성남시 UHF 46 • 인천시 UHF 47 • 서울구로구 UHF 39 • 서대문구 UHF 45 • 성북, 도봉구 UHF 51 • 은평구, 서대문구 UHF 57

PD일기

월화드라마 「결혼」의 제작을 마치고

이젠 아쉽기만한 6개월간의 '동고동락'

오종록·TV제작국, 「결혼」연출자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기자 시험을 순례하다 단지 시험과목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프로듀서 시험을 치게 됐고, 프로듀서가 무슨 말인지 몰라 면접시간 직전에 사전을 들춰보았다. 그래 1년만 해보자, 아니 5년만 더 해보자고 다짐하다 십년째 프로듀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남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세상에 대한, 일에 대한 꿈 같은 게 없어져 버렸다. 일과 여자에 대한 꿈이 없어져 버린 남자 인생 30대에 느는 것은 잔머리 굴리는 기술이요(?), 소주와 담배와 보신탕과 음담패설이다.

나는 정말 지겨운 이 30대를 살기 위해 우습게도 구체적인 일도 피부로 와닿는 여자도 없는 20대의 상태로 내 자신을 되돌려 놓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30대의 몸에 20대의 머리를 갖다 얹기 위해

서는 반드시 솔직하고 간단해져야만 했다.

작가 조희

처음 만난 작가 조희는 느낌이 독특한 사람이었다. 두렵다는 듯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하며 가끔씩 터뜨리는 실소 같은 웃음, 그 웃음 뒤에 나오는 한동안의 침묵, 어려운 상대를 만났구나 싶었다.

나는 사람을 만날 때 내 자신이 그 즉시로 해석되게끔 솔직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서른살을 넘기면서부터 갖게 된 내 나름대로의 철학이다. 솔직하게… 간단하게.

나:(솔직하게) 작가는 서술자이고 프로듀서는 묘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서술영역은 애시당초 건드리고 싶지 않을 뿐더러 도움도 바라지 말고 프로듀서의 영역도 참견하지 마십시오. 역할분담 똑바로 해서 앞으로의 6개월이 피곤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조희:(실소)

나:(간단하게) 프로듀서와 작가는 마치 부부처럼 일심동체가 되는 게 이상적인 결합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 우리가 하는 드라마에서만이라도 관념적으로 공유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드라마가 '인간'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 씨의 '인간'과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조희:(침묵, 그리고 예의의 그 시선)

그는 다만 지난번 드라마 끝나고 생각해 둔 게 있는데 연속극으로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쓸 수 있겠다는 얘기를 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스스로 구분하는 솔직함에 나는 그가 쓴 드라마를 한번도 보지 않고 참으로 간단하게 그를 신뢰했다. 그리고 그 신뢰감은 드라마가 끝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다.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은 폐활량이 커야 하듯 그는 언어에 대한 폐활량이 무척 큰 편이다. 초살인적인 단문과 중문 복문이 교차하는 절묘한 대사는 드라마가 끝나는 동안 주연배우에서 단역배우까지 모두들 치를 떨게 만들었다.

촬영현장으로 전송돼 오는 팩시밀리 원고를 들고, 녹화 전날에야 원고가 떨어지는 대본을 앞에 놓고 수없이 밤을 새면서도 그를 비난할 틈이 없었다. 시험을 걸어오는구나. 내가 여기서 지면 안되지. 앞뒤 신은 미루어 짐작해서 감정선을 정리하고, 좀더 사람이 보이겠끔 콘티의 줄을 치면서 '나는 지지않는다, 작가 조희가 선수면 나도 선수다'라는 오기로 솔직하고 간단하게 6개월을 버텼다.

연기자 최명길

연기자로서 최명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드라마는 나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캐스팅 단계에서 그가 보여줬던 신뢰감, 계약단계에서의 담백함, 다소 어수선한 초반 분위기 속에서 곧바로 배역에 몰입해 들어가는 철저한 프로 근성. 머리칼을 자르고, 물들이고, 또 자르고, 드라마의 흐름에 따라 때론 미운 모습까지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의 프로 기질은 놀라울 정도였다.

지영을 죽이지 말라던 수많은 시청자들의 협박성 전화는, 백마디 지문보다 순간의 표정으로 관념적인 캐릭터를 사실적인 인물로 연기하는 배우의 힘이란 역시 대단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선배 프로듀서의 주장처럼 배우의 연기는 '보는 영화, 느끼는 드라마'로서 느낌의 최고 장치이다.

연기하기 전의 그는 스스로 포화상태가 되어서 오고, 자기 계산을 미리 드러내는 법이 없다. 자신의 연기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지며 나에게 판단을 요구하지만 나는 "몰라요."라고 대답하며 그의 연기력을 다 주워 먹겠다는(?) 속셈으로 사전 콘티를 절대 들이대지 않았다.

연출자와 작가의 상상력을 최대로 자극하고 각본과 콘티에 따라 주어진 배역에 충실할 뿐 아니라 드라마의 흐름을 스스로 끌고가 드라마를 '생물(生物)'이게 만드는 연기를 보여준 그는, 배우는 시청자들한테만 스타가 아니라 작가, 연출자와 스태프들한테도 스타여야만 한다는 걸 일찍부터 터득하고 있다.

작곡가 최완희

작곡가 최완희는 햇수로 3년, 드라마는 3번째 나와 함께 하는 사이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들이 어떠한 학습에 의하지 않고도 음악에 대해 원초적 반응을 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여러 차례 한 나로서는 드라마에 있어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장치인가 하는 것을 일찍부터 인정하고 있었다.

작가와 프로듀서가 한 느낌 한 목소리로 얘기해야 하듯 극히 관념적인 주제를 사실적인 언어로 기술하는 작가와 논리 이전에 느낌의 상태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곡가도 관념적으로 일심동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본에다 음악 콘티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내가 했던 작업은 시종일관 피차의 정신 구조에 대한 해석과 이해였다. 그와 로바다야끼, 록카페, 포장마차를 순례하며 보낸 철야 폭음의 밤들.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간단해지고 솔직해지고, 벌거벗은 서로의 본질이 해석되고 이해되었다.

결국 우리는 멜로드라마에 오케스트라를 쓰는, 작품의 70~80 퍼센트에 음악이 깔리는 50년대 미국영화 식으로 음악 포인트를 잡기로 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프로듀서는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계산을 해본 적이 있다. 촬영있는 날을 기준으로 회사의 간부부터 엑스트라까지 대충 70명은 된다는 답이었다.

폭발적인 인기와 관심을 모았던 「결혼」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오종록 프로듀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한 장면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프로듀서로 유명하다.

프로듀서의 일이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드라마 「결혼」을 하면서 내가 관계했던 세 사람만을 여기서 얘기했지만 나는 카메라의 이승노, 이영철, 이승춘과 조명의 박만창, 오디오의 김영재, 분장의 박미정, 진행의 안대회 등 이 드라마를 하는 동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일에 대해 잊을 수 없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천천히 써보고 싶다. S

사진/정분경

「마음은 언제나 청춘」의 '가정 탐방'

할머니의 따스한 등에 기대보는 우리집 풍경

연출/정태익

진행/신용철·이소영

방송/월~일요일 아침 5시 5분~6시

"아이고, 방송국 색시, 어서 와요. 오느라고 고생 많았지?"

미리 라디오 프로그램이라 의상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저녁시간임에도 화장을 하신 모습으로 취재를 위해 찾아간 나를 반갑게 맞아주신다. 내가 취재를 온 건지, 할머니댁에 오랜만에 찾아온 손주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정 탐방'은 시작된다.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차와 떡 등 정성스런 음식을 먹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늦은 밤이 되고

그제서야 겨우 자리를 일어설 수 있다.

일요일 아침 「마음은 언제나 청춘」의 '가정 탐방'은 이렇게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찾아가 어울려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들의 지혜와 행복을 일구어가는 노력을 만나보는 시간이다.

매일 새벽 5시 5분, 이른 아침의 상쾌함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음은 언제나 청춘」은 건강하고 젊게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전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시대의 노인상 정립'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봄 개편으로 젊고 참신한 감각의 정태익 프로듀서가 새롭게 이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고, 손주뻘인 신용철·이소영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더욱 신선한 정보와 활기찬 아침을 선사하고 있기도 하다.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정 탐방'은 섭외에서부터 수십통의 전화를 해야만 하고, 때로는 며느리의 '허락'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힘든 섭외 과정을 끝내고 '가정 탐방'을 시작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은 방송에 대한 긴장감에서 차츰 벗어나, 리포터를 친근한 손님처럼 대하며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덧 방송용 멘트(?)가 아닌 생활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터놓게 되는 것이다.

3대가 함께 살면서 때로는 심한 갈등도 겪고, 웃고 우는 일도 생기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보다듬으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밀어주며 살아간다.

"가끔 주위에서 힘든데 왜 같이 사느냐고 물을 때, 참 당황하게 되요. 우린 참 편하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거든요. 부모님께 특

부모를 모시고 3대가 한 집안에서 살아가면 때로는 갈등도 겪게 되고, 웃고 우는 일도 생기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감싸안는 우리네 이웃을 찾아가는 '가정 탐방'. 이들의 훈훈함을 통해 진정 사람 사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다.

별히 잘해드려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해드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신다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저도 부모지만 큰일에서부터 살림살이 꾸려나가는 것, 아이들 키우는 것, 모두 어머님 아버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죠."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얘기를 이어나가는 며느리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질문을 한 내가 민망해진다.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똑똑한'(?) 며느리 덕에 집에서 쫓겨난 할아버지의 눈물을 만날 때도 있다.

정대익 프로듀서와 신용철·이소영 아나운서가 이끌고 있는 「마음은 언제나 청춘」은 건강하고 젊게 살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절친한 벗으로 이른 새벽 상쾌함을 담아 찾아간다.

"도둑질 빼놓구 다했어. 그래서 5남매 키워 다 대학 졸업시키구, 시집 장가 보내구, 이젠 내 할 일은 끝났구나 혔지. 5년 전에 할망구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구, 큰 아들과 같이 살려구 재산 다 긁어 모아 줬지. 근디 며느리가 나를 못 모시겠다는 거여. 요즘 시상이 워떤 시상인디 부모랑 같이 사냐는 거여. 처음엔 아들놈이 혼내고 하더니 지가 포기 허대. 부아가 났지. 근디 그게 지옥이여. 하루종일 말 한마디 안허구 내가 마루에 나가면 저가 들어가고, 밤마다 싸우고 결국은 내가 나왔지. 다른 자식들도 다 같어. 그래서 이 모양으로 살어. 내가 얼른 죽어야 할텐데…."

벌겋게 상기된 할아버지의 두 눈엔 어느덧 눈물이 흘렀고, 2평 남짓한 할아버지의 삭월세 단칸방은 더욱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확실히 세상은 변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이마에서, 수십년 전 사진을 쓰다듬는 할머니의 손길에서, 그리고 '신세대 며느리'의 당당한 표현에서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가정'이라는 단어 자체도 변한 걸까.

실버산업 분야가 활발히 개발 진행중이고, 이제는 노후 대책을 30대 이전부터 세워야 한다고 한다. 그 대책 중의 하나가 자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의 미래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

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미래의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을 만큼 윤택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이 '보상'에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자식과 손주와 살고 싶어 한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가정을 취재하다 보면, 어른을 모시고 사는 일이 어쩔 수 없는 의무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오히려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들의 모습은 밝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칭찬하며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 할아버지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얘기를 들려 주는 모습이 지나간 옛 기억으로만 남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어오신 삶 그리고 현재에 우뚝 선 모습, 그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자식들, 할머니의 품이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하는 손주들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행복이 아닐까 싶다.

딸 같은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께 드리는 것은 '부양의 의무'가 아닌 효(孝)이며, 그 모습은 자연스럽게 보여진다. 이런 것을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마음은 언제나 청춘」의 '가정 탐방'이다.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의 가족들. 때론 공감하고 반성하며 노력을 다짐해 보는 시간인 것이다.

아직 미혼인 내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법'을 가르쳐 준 많은 가족들처럼 또 다른 모습으로 행복을 엮어가는 가정을 탐방하기 위해서 나는 또 전화기 앞에 앉는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만나볼 가족들의 환한 얼굴을 그려 보면서. **S**

글/오은경·「마음은 언제나 청춘」 리포터

사진/정분경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단지 '부양의 의무'만이 아닌 '효(孝)'의 자연스런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가정 탐방'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도.

5월중 등촌동 SBS 공개홀의 공개방송 일정

일	월	화
1 생방송 TV 가요 20	2 대결 20/40(2편)	3 특집 고부노래자랑
8 생방송 TV 가요 20	9 좋은 친구들(2편)	10 맞수 TV최강전
15 생방송 TV 가요 20	16 대결 20/40(2편)	17 맞수 TV최강전
22 생방송 TV 가요 20	23 좋은 친구들(2편)	24 맞수 TV최강전
29 생방송 TV 가요 20	30 대결 20/40(2편)	31 맞수 TV최강전

수	목	금	토
4 열려라 웃음천국	5 스타와 이밤을	6 순간 포착 당신이 특종	7 기쁜 우리 토요일
11 열려라 웃음천국	12 스타와 이밤을(2편)	13 순간 포착 당신이 특종	14 기쁜 우리 토요일
18 열려라 웃음천국	19 스타와 이밤을(2편)	20 순간 포착 당신이 특종	21 기쁜 우리 토요일
25 열려라 웃음천국	26 스타와 이밤을(2편)	27 순간 포착 당신이 특종	28 기쁜 우리 토요일

전북 이리에서도 SBS를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전북 이리에 사는 주부입니다. 가끔 일 때문에 서울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자주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서울에 사는 딸의 집에서 머뭅니다.

서울에 올 때마다 딸과 외손녀와 함께 며칠이라도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누립니다만 제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리에서는 볼 수 없는 SBS-TV를 보는 일입니다.

특히 SBS의 드라마는 참 재미있습니다. 「궁합이 맞습니다」「가을여자」「결혼」 등은 참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입니다. 어쩌다 한번씩 동행하는 남편도 「머나먼 쏭바강」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리로 내려오면 SBS 드라마를 볼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함 때문에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드라마 이야기를 전해 듣곤 해서 장거리 전화비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느낌은 서울 사람들은 절대 느끼지도, 짐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리모콘으로 네 개의 채널을 돌리다가 세 개만 돌리는 것은 방송을 시청할 권리가 25퍼센트가 준 것이 아니라 50퍼센트 이상이 줄어든 것 같은 갑갑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겪어야 하는 차별이 아닌가 하는 위화감마저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정부가 지방에도 민영방송을 허용하고 그 방송을 통해 SBS를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니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말로만 '지방화 시대'를 외치면서도 문화적 차별을 느끼게 했던 섭섭함이 해소되는 기분입니다. 이 역시 서울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어서 빨리 호남지역에 민영방송이 생겨서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많아지고, 이를 통해 SBS-TV의 문화·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되기를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려 봅니다. S

박정님·전북 이리시 평화동 89번지

SBS스포츠 중계를 통해 즐기는 세계적인 명승부

우리 나라 쇼트 트랙이 지난 2월에 벌어졌던 릴레함메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독식하고부터는 쇼트 트랙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더 높아졌다.

거의 원형에 가까운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역주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아슬아슬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한다.

4월 1일부터 영국에서 세계 쇼트 트랙 대회가 열렸는데 신문의 TV 프로 안내를 통해 SBS-TV가 이 경기를 위성으로 중계 방송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의외의 일이었다. 지금까지는 세계의 주요 선수권 대회를 TV에서 중계해 준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SBS-TV에서 이 경기를 위성으로 중계한 사실은 참으로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SBS-TV의 위성 중계에 힘입어 우리 나라 선수들이 첫날 금메달 두개, 동메달 한 개를 따내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된다.

앞으로도 굳이 우리 나라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더라도 세계적인 관심을 끌만한 경기는 녹화라도 해서 중계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SBS-TV에서는 타방송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스포츠인 볼링, 골프, 당구, 에어로빅 등을 선보여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 참신하고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S

송헌철·인천시 동구 창영동 105-14

아침 시간에 엄마와 함께 하는 유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SBS가 생긴 후로 다채로운 프로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 TV를 더 자주 시청하는 것 같다. 얼마전에 끝난 드라마 「결혼」을 시어머니와 함께 공동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세 자매의 결혼생활에 대해 어머니와 나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런데 SBS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느낀다면 아침 시간에 유아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세 살된 딸아이에게 유아 프로는 즐거움과 더불어 좋은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 딸아이는 자다가도 눈을 떠 유아 프로를 시청한다.

나는 아이가 성인 오락 프로를 보고 유행하는 특이한 춤과 노래를 흉내내는 것이 어느 때엔 걱정스럽다. 어린이 프로에서 듣고 보는 동요를 부르고 흉내 내는 순수하고 밝은 모습을 더 원한다. 아이를 기르고 있는 주부들이라면 나의 이런 마음에 공감하리라 본다.

아이들의 눈은 더없이 날카롭다는 것을 TV를 시청한 후의 그들의 표현에서 알 수 있다. 아이가 즐거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TV를 지켜본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의 새싹들이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면 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S

김두화·서울시 구로구 신구로 6동 현대아파트 1동 1104호

SBS는 시청취자와 함께 만듭니다

SBS-TV와 라디오를 시청취하면서 느낀 점이나 방송 전반에 관한 의견, SBS에 바라는 의견, 「SBS 매거진」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200자 원고지 5매** 내외로 적어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글은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립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때는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십시오.
마감은 **매달 15일**까지 입니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서울방송 홍보부 「SBS 매거진」 앞
(우편번호 150-777)

SBS 주말극장 「사랑의 향기」를 보고
"등장인물의 독특하고 다양한 직업이 신선하다"

나는 늘 향기라는 말이 주는 매혹적인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편이다. 더구나 '사랑의 향기'라니… 반복적인 일상이 주는 무미건조함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안겨주는 드라마 한 편이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굳건히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최진실과 강인한 남성적 매력으로 다가오는 이병헌의 사랑을 주축으로 주변 인물들의 사랑과 우정, 갈등과 고뇌를 그려나갈 이 드라마의 시작을 보면서 내 마음은 자못 기대감으로 출렁거렸다.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원숙한 연기자 김영애를 비롯하여 완고한 표정 뒤에 자상한 품성을 가진 듯한 이정길, 일용엄니 김수미의 화려한 변신 그리고 발랄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갖춘 전도연 등 출연진만 살펴보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든 화끈하게 벌어질 분위기다.

표면적으로 다른 드라마와 별 차이 없이 평범해 보이지만, 우선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주인공들의 직업이었다. 우리 나라에선 아직 생소한 직업인 카레이서, 만화영화 제작 스태프라든가 엄마 가장인 김영애의 부동산 중개일 등은 다른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직업의 식상함과 위화감을 말끔히 가셔줄 만큼 신선했다.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한 「사랑의 향기」가 깊이있는 감정의 굴곡으로 힘겨운 사람들에게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드라마로 자리잡길 바라며, 진지하고 감동적인 '사랑의 향기'로 시청자들과 더불어 호흡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S

유영주·서울시 성북구 석관 1동 71-19

법정드라마 「박봉숙 변호사」를 보고

"올바른 법해석과 정의로움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법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 권위, 형식 그리고 숨막힐 듯한 엄숙으로 상징되는 곳. 일반인에게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꼽아보라면 병원 못지 않게 앞자리에 서는 곳.

하지만 세상이 복잡해지고 서로의 이권다툼이 노골화된 요즘 법정은 더이상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어느날 길을 가다 우연히, 의도하지 않는 일의 결과로, 또는 가장 가까운 친지의 일로도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정이다.

지난 4월 24일 첫회가 방송된 「박봉숙 변호사」. 외국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법정 장면이 브라운관에 등장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모방송사의 법정드라마가 '잠시'방송된 것을 제외한다면, 본격적인 법정드라마는 처음인 것 같다. 사건과 법을 드라마의 소재로 삼았다면, 일단 그 부분만은 철저하길 바란다. 현직 변호사들로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다면 더더욱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은 치열한 리얼리티의 현장으로서의 법정을 원한다. 그 안에서 고민하는 인간으로서의 변호사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중간과정을 거쳐 기소가 되어 법정에 선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으고 그를 위해 변호한다. 그 과정에서 극적인 반전과 함께 정의는 승리한다.' 법정드라마들은 대개 이와같은 기본적 맥락에서 전개된다. 이제 우리도 긴박감 넘치는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정보까지도 함께 얻으면서. S

이승분·서울시 강서구 방화1동
방화2단지 아파트 213동 204호

「21세기 신한국의 선택 – 최전선의 한국인」을 보고

"다시 개척해야 할 중동 시장의 보고서"

방송 중인 「21세기 신한국의 선택」은 볼 때마다 그 주제에 대한 공감과 설득력에 놀라곤 한다. 「최전선의 한국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70년대 열사의 중동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근로자들은 땀을 팔아 돈을 모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은 살게 되었다며 눈을 돌려버린 그곳 중동의 한 나라 오만에서 조경업으로 성공한 박 사장의 이야기를 축으로 이 프로에서는 그곳의 시장성을 짚어 나갔다.

대기업의 자동차와 가전제품 판매 상황과 문제점을 현지인이 과장없이 말하고 서비스의 문제점, 기술의 취약성 등을 지적했는데 일본과 서방 시장이 일찍 발을 들여놓은 그곳에서 우리의 제품이 더욱 쉽게 비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는 최전선의 한국인들이 있었다. 대기업의 사람들이 아닌 독립된 사업을 현지에서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오만에서 가장 큰 조경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박 사장도 그중 한 명이었다.

석유로 벌어 들인 돈이 쌓여 있는 나라, 사막 한가운데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서 어떤 나라로든 직통 전화를 걸 수 있으며, 위성 안테나로 각국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나라 오만. 중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발전했으며 또 그만큼 다양한 시장성이 내재된 곳임을 보여 주는 좋은 기회였다. 그곳에서 자리잡고 있는 최전선의 한국인들은 21세기 신한국이 그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S

김문하·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신원당 마을 103동 1306호

참깐만!

SBS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다시 만나십시오

언제나 곁에 있는 기쁨과 감동

SBS 프로덕션은 SBS가 제작 방송한 프로그램을 비디오 테이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깝게 놓치거나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 해외에 살고 있는 친지들에게 고국의 향수와 인정을 담아보내고 싶으신 분, 또는 교육기관과 공공단체, 기업체의 연수용이나 홍보용 시청각 자료로 비치하려는 분께서는 지금 바로 SBS 프로덕션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좋은 프로그램이 주는 감동과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해드립니다.

판매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5 SBS 프로덕션 사업부
주문방법/전화(02)784-1343~4, 또는 Fax(02)784-6660
프로그램 가격(VHS테이프)
30분-1만 7,000원 60분-2만 4,000원 90분-3만 1,000원

SBS나 SBS직원을 사칭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불법업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SBS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는 전화나 직접 주문에 의해서만 판매합니다.

신국판, 총 146쪽
자유문화사 펴냄
값 6,000원

「분장의 길」

현역 방송분장사가 엮은 분장 기초 입문서

15년간 방송사에서 분장을 담당해온 SBS의 이학재 분장 팀장이 그간의 경험과 외국 전문서, 일반 분장술 등을 집약해 가장 한국 실정에 맞는 분장법을 단계적으로 정리한 분장 기초 입문서를 펴냈다. 「분장의 길」이 바로 그것인데, 이 책은 분장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분장의 기초단계인 무대 분장에서부터 뷰티 메이크업, 영상분장, 사극분장, 특수분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쉽게 분장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저술하고 있다. 부록으로 작품 분석 요령과 기본적인 방송용어를 담고 있다. 이학재 분장팀장은 「모래위의 욕망」 「세남자 세여자」 등에서 뛰어난 분장술을 선보여 세인들과 친숙한 방송인이다.

SBS 문화살롱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에 대한 '이상열기'

활발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요계

「아가씨와 건달들」「캐츠」 공연, 그 이유

국립극장의
「사랑의 승리」와 「카르미나 부라나」

외국 TV광고의 사후심의 압력에 대응

스필버그의「쉰들러 리스트」에 대한 '이상열기'

대대적인 찬사에 비해 예술성은 다소 미흡

이채훈·영화비평가

할리우드 영화 배급업자의 손길이 미치는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는 지금 '쉰들러'라는 이름이 보통명사화되고 있다. 전파와 책자 등을 타고 창출되는 쉰들러에 관한 담론들은 또다른 담론들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일상적 대화의 중심으로 파고 들고 있는 것이다. 이 강력한 파동은 이곳 서울에까지 미쳐 한달 사이에 35만의 관객 동원이라는 당혹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지구촌을 수천만년 전의 공룡시대로 되돌려 놓았던 스필버그가 올해는 영화「쉰들러 리스트」로 50년 전 유태인 대학살이라는 참혹한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다. 그는 "「쉰들러 리스트」는「쥬라기 공원」같은 작품 3개와도 바꿀 수 없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자신이 유태인임과 그 때문에 제작기간 내내 고통과 분노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면서 영화의 극적효과에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리암 니슨)가 대학살로부터 유태인 1,200명을 구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쉰들러의 소박한 휴머니즘과 스필버그가 재현해낸 유태인 대학살의 참상 때문에 관객들에게 호소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아카데미 7개 부문을 수상한「쉰들러 리스트」는 특히 스필버그가 처음으로 감독상을 탔다는 사실로 대단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스필버그는 그동안「죠스」「E.T」「인디아나 존스」「쥬라기 공원」등으로 '영상의 귀재' '흥행의 황금손'이라 불리면서 재치는 인정받았으나 정작 진지한 작가정신이 결핍됐다는 점 때문에 비평가들로부터는 냉대를 받아왔었던 것이다. 그런 그였기에 이번의 아카데미 감독상은 그동안의 스필버그의 컴플렉스를 일거에 씻어주는 추인서 역할

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쉰들러 리스트」의 작품성을 미국의 비평가들만큼 높이 쳐줄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흑백 화면을 이용한 뉴스 필름을 방불케하는 다큐멘터리적인 기록성과 영화 곳곳에 숨겨진 서스펜스와 반전의 극적 효과가 3시간이 넘는 상영시간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감정을 사로잡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벌이를 위해 온갖 수완을 부리고, 도박과 술과 여자를 즐기며, 나치당원이기도 했던 쉰들러가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로부터 빼내기로 작심하게 되는 인간적 변모과정에 대한 설득력이 이 영화엔 부족하다. 그건 어차피 쉰들러의 불가사의한 내면적 특성 탓이라고 치더라도 영화의 밑바탕에 흐르는 치기어린 감상주의는 이 영화의 무게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유태인수용소 사령관의 하녀를 두고 벌이는 쉰들러와 사령관 괴트 사이의 긴장이라든가 결론부에서 쉰들러가 자신의 차만 사지 않았더라도 "유태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수 있었을텐데"라며 울부짖는 장면 등은 사실 여부를 떠나 스필버그가 가진 피상적 역사 인식의 한계를 읽게 되는 대목들이다.

스필버그는 「칼라퍼플」「태양의 제국」같은 영화에서 보듯이 현실과 역사로 내려오기만 하면 우주인과 공상과 공룡의 세계에서 펼쳐보이던 무한한 상상력이 갑자기 위축되면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역사적 상상력과 사회적 감수성의 이러한 빈곤이 그에게 '작가'라는 의미에서의 영화감독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는데 주저하게 만들어왔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쉰들러 리스트」도 크게 예외적인 작품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독일 나치주의자들이 유태인들에게 가한 참상과 그로 인한 살아남은 자들이 고통을 「소피의 선택」이나 「안네 프랭크의 일기」, 란츠만의 「쇼아」, 알랭 레네의 「밤과 안개」 같은 영화들을 통해서 익히 보아왔다. 이들 작품과 비교해 「쉰들러 리스트」가 과연 미국 언론들이 현재 전세계를 향해 대대적으로 쏘아대고 있는 찬사를 받을 만큼의 획을 긋는 탁월한 작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사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두고 미국 언론들이나 비평가들이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과잉 칭찬 일변도로 나가는 데는 작품 외적인 조건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세들에게 홀로코스트(유태인 대학살)의 역사적 경험을 전해줄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과 이를 '문화적 기억'으로나마 보존해야겠다는 유태계 미국인들의 강박감이 그것이다. 특히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태인들이 행사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그들의 '역사적 책무감'이 「쉰들러 리스트」를 예술적으로 제대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보스니아의 '인종 청소'를 생각해볼 때 「쉰들러 리스트」는 인종적 편견이 부른 20세기의 '인간의 대죄'를 성찰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선악의 차원에서 감상적으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살의 피해자였던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 수십년동안 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학살'을 염두에 둔다면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영화적 진실'은 기형적인 모습인 것이다. 「쉰들러 리스트」를 둘러싼 최근의 '이상열기'는 그래서 다소 위태롭게 다가온다. S

활발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요계

맹렬한 가요 창작붐으로 저작권과 개방 압력에 대응

지명길·가요비평가

요즘 지적소유권, 즉 저작권에 대한 외국의 목소리가 매우 높게 들려오고 있다. 이 저작권은 음악이나 영화, 연극 혹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나 물건의 상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복사나 복제에서 그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음악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한 영리의 목적으로 연구하거나 재생할 때도 사용료를 내게 되므로 그 대상 범위가 매우 크다.

우리 나라에도 음악저작권협회가 있다. 금년 6월 창립 30주년을 맞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 구실을 하게 된 것은 지난 87년, 해방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던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부터였다.

확실한 법의 보호 하에 본격적인 음악 사용료 징수에 나선 것이 88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방송사에서는 찬조금 명목으로 약간의 사용료 협조가 있었고 일반 유흥음식점에서는 공연장이나 연주인이 있는 업소만 음악사용료가 징수되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 방송사는 방송 수입에 비례하는 사용료를 내게 되었고 유흥 무대는 음악을 사용하는 전 업소에 해당되어 올해의 음악저작권 수입예산액은 무려 13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예산액도 아직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모든 분야에서 저작권법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법적 갈등은 끊임없이 생기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용자나 저작권자 모두에게 파급되고 있다.

그러나 좀더 실질적인 문제는 징수된 저작권사용료의 작가별 분배시에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지난 93년 말 음악저작권협회 회원수는 1,824명이었다. 한 곡이라도 발표된 작품이 있으면 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관리해주는 이 협회는 국가에서 공인한 단체이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는 심각했다. 현재 전체 회원 중 저작권를 받아 생활하는 작가는 불과 3분의 1에 지나지 않고 또 전체의 3분의 1 정도는 일년간 회원으로서의 관리비조차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음악 작가들이 작품을 쓰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 히트곡이 많아서 메들리 가요나 노래방 목록에 빠지지 않는 작가와 최근 히트곡을 잘 만드는 신세대 작가들 몇몇이 차지한 3분의 1이란 숫자는 그대로 우리 가요계를 명백히 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요음반 1매를 제작할 때 작품료의 부담이 적지 않다. 십여 년 전만 해도 불과 작품 한 편 당 10 내지 20만원에 지나지 않았고 다행히 히트 목록에 오르면 히트 보너스를 받는 게 고작이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물론 그동안의 물가지수나 기타의 여건 변화도 있겠으나 작품 한 편당 최소한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달하며 경우에 따라선 레코드 판매량에 따른 일정 지분의 인세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모든 작가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선택권은 수요자, 즉 가수나 음반 제작자에게 있으므로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불과 십년 안팎에 이른바 잘 나가던 작가의 이름들이 지금 음반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나이는 이제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이다. 뿐만 아니라 60~70년대 성인 가요를 활성화 시키며 명작을 양산하던 현재 50~60대 작가들은 대부분 손을 놓고 있다.

그들의 이유는 간단하다. 80년대 발라드와 댄스곡의 주역들은 지금의 컴퓨터 음악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휩싸이기 싫다는 것이며, 그 이전 정통 트롯의 주역들은 현재의 팝스타일 트롯이 싫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언제 어느때라도 대중음악의 정신과 형태는 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한때 유행가라고 호칭되던 대중음악은 상업성을 갖고 있으며 이름 그대로 시대와 유행에 따라 물 흐르듯이 흘러가며 그 시대를 조명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가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는 것은 이미 작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작품을 써야 한다. 컴퓨터 음악에 적응하지 못한 작가들은 음악을 만드는 방법보다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에서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정통 트롯만을 고집하는 작가들은 되돌릴 수 없는 옛날에의 향수가 너무 짙은 것이 문제다.

앞으로 수백억원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징수된다고 해도 그것은 현실을 인정하며 노력하는 작가들의 몫이다. 더구나 95년 이후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개방의 물결이 이 나라를 강습할 때 대중음악 분야에서 그 파동은 엄청날 듯 싶다. 작곡, 편곡과 연주, 녹음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 세계 유수의 세련된 기술이 밀려든다고 하면, 물론 취사 선택의 여지는 있다고 해도 우리의 작가들은 많이 도태되고 만다. 그쯤되면 저작물 사용료도 당연히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 외국 음악을 방송과 상업에 사용한 부분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의 작가와 기술진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까지 포함되어 그 액수는 짐작하기 쉽지 않다.

정부의 대중음악 보호 육성 제도는 한 가지도 없다. UR 서비스 개방이나 일본과의 문화교류, 심지어 남북 간의 문화교류 얘기가 나와도 대중음악은 언급이 없다. 대중가요의 국제 경쟁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작가는 작품을 써야 한다. S

「아가씨와 건달들」「캐츠」공연, 그 이후

모방 기획에서 벗어나 한국적 뮤지컬을 창조해야

이영미·연극비평가

대형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공연과 「캐츠」의 내한 공연은 94년 봄 연극계의 최대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둘 다 국내 최고급 극장인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이루어진 대형 뮤지컬이었다는 점, 우리나라 공연 사상 유례가 없는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매진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 또 연극 공연으로서는 드물게 엄청난 대중적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이 두 작품은 작년 「레미제라블」과 「캐츠」, 「코러스 라인」 등으로 빠른 속도로 달구어져 가던 뮤지컬 붐의 절정에 위치해 있으며(적어도 현재로서는), 올해 연극계의 최대의 화제를 뮤지컬로 돌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두 작품의 공연은, 시쳇말로 '환상적'일 정도로 대중들을 그 홍보담론 속으로 끌어들였으나 역설적으로 이들 공연은 우리 시대의 한국 연극 문화의 현실을 가장 냉철하게 인식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공연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대형 공연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 기획이라는 사실이다. 근년 들어 누차 생각하게 된 문제이지만 이제 연극에도 '기획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아가씨와 건달들」의 경우, 심하게 말하면 성공한 것은 기획밖에 없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뮤지컬 전문극단으로서의 에이콤이라는 기획사의 설립과 그 홍보, 80년대 최고 흥행의 뮤지컬이었던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레퍼토리의 선택, 대중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 수 있는 스타들의 성공적인 기용,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이라는 최고급 극장 대관, 언론사를 파트너로 선택한 것 등이 작품 흥행의 성공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제작비나 최고 입장료의 책정조차 좀더 비싼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하는 이들 공연 관객층의 요구에 적중한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연출이나 안무, 연기로 평가되는 작품 내적인 성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중평이다. 춤과 노래를 비롯한 연기의 평균 수준이 80년대 「아가씨와 건달들」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그 공연을 본 관객들은 이번 공연에 모두 실망을 금치 못했다. 대중적인 코믹 애정 뮤지컬이 갖추어야 하는 상큼한 리듬감을 갖지 못했으며, 서로 이질적인 연기 방식을 지니고 있는 주요 연기자들끼리의 앙상블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작품의 재미를 반감시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관련없이 이 작품은 대중적인 흥행 성공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계속되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기획의 주도는 「캐츠」의 내한공연에서 절정에 도달했다. 바로 작년까지 공연되었던 익숙한 레퍼토리의 선택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부담없으면서도 고급스러운 공연물인 뮤지컬 수요에 착안한 '본토'뮤지컬의 유치, 예상 관객들에 걸맞는 공연 조건의 형성과 언론 플레이 등은 이미 작품의 질과 무관하게 흥행의 성공을 예상케 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캐츠」는 기술적 수준에 관한 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공연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는 한번도 구경할 수 없었던 그 기술에 한국의 관객들은 탄복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웠으며, 그들은 애초부터 놀라운 기술 수준에서 나오는 재미를 선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도인 듯했다.

따라서 기획으로서는 성공했지만, 그 화려한 「캐츠」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공허하다. 이 공연은 관객의 눈을 작품의 내용이 아닌 기술적 수준으로 바꾸어 버리는 데에 기여했으며, 관객이 아주 높은 기술 수준을 맛봄으로써 이제 국내의 뮤지컬은 그러한 기술 수준에 비교 대상이 되게 되었다. 특히 구미 뮤지컬의 번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로서는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인이 하는 「캐츠」를 감동스럽게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아가씨와 건달들」이나 「코러스 라인」도 곧 그러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본토 작품의 모방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것이 뻔한 이들 작품은, 더 이상 국제 경쟁력을 요구하는 이 무한경쟁의 시대에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공연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연극인들이 고민할 것이 이들 작품의 모방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몸짓 우리의 소리를 개발하는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열심히 연구해야 하지만 모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기획의 시대에 본토의 문화산업 전문경영자들의 눈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리라. 영국이 뮤지컬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뮤지컬을 누르고 세계 정상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도, 미국 뮤지컬과는 다른 유럽다운 뮤지컬을 창출해냈기 때문이다. S

국립극장의 「사랑의 승리」와 「카르미나 부라나」

음악과 무용이 결합된 새로운 도전의 공연

이장직 · 음악비평가

지난 4월은 프랑스 문화축전의 일환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바스티유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단의 공연으로 다른 음악회들은 상대적으로 퇴색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내실있는 공연으로 청중들의 호응을 받은 공연도 있었다.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 「사랑의 승리」(하이든 작곡)와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된 「카르미나 부라나」가 그것이다. 특히 대극장 공연에서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 국악 앙상블의 「로비 음악회」를 개최하여 음악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든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놀이방 운영 등으로 청중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 편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린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다. 오페라를 제작해 상연하는 것은 많은 재정적 출혈을 감내해야 하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뮤지컬처럼 장기 공연에 돌입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불과 3, 4일 공연에 그치고 말 대형 오페라의 제작은 민간 기업이나 국공립 단체의 적극적 후원없이 순수한 매표 수익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립 오페라단이 지난 82년부터 시작해온 소극장 오페라 운동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사랑의 승리」 공연으로 국립 오페라단의 소극장 무대는 14회째를 맞이했다. 안재성이 지휘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김홍승이 연출을 맡은 이번 공연에서는 지금까지의 소극장 무대와는 달리 배우

들이 무대 바깥으로 나가고 객석으로 내려왔다 올라가는 등 좁은 무대 공간을 최대한으로 살리려는 제작 의도가 엿보였다.

출연진들도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연기에 임했으며, 무대와 관객의 거리감이 해소되고 가사 전달에 성공함으로써 간간이 폭소를 자아내는 등 소극장 무대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적절한 인물 묘사와 연기로 주목을 받았던 전성환(벨롯또 역), 중후한 음악적 기량을 선보인 김관동(마지노 역)과 이단열(에리꼬 역)은 물론이고 국립 오페라단의 신입 단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기남(리젯따 역), 이미연(로지나 역), 허정림(바로넷사 역) 등의 연기와 가창력이 눈부셨다.

이 오페라는 귀족 부인 바로넷사가 양아들 벨롯또를 어부의 동생 로지나와 결혼시키려고 온갖 모략과 협박을 가하지만, 이미 에리코 백작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로지나의 순결한 사랑에 호색가인 에리코 백작도 바로넷사도 감동을 한다는 줄거리이다. 얽히고 설킨 사랑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재미와 더불어 빠른 무대 전환으로 박진감이 넘치는 무대였다.

한편 국립 합창단과 국립 발레단,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참여한 「카르미나 부라나」공연은 음악과 언어, 무용 3요소의 완전한 일치라는 작곡자의 의도에 충실한 보기 드문 공연이었다. 지금까지 국립 합창단을 포함한 많은 합창단에서 이 곡을 연주했지만 무용이 함께 곁들여짐으로써 총체 예술의 가능성을 추구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작품의 제목은 '보이렌의 시가집'이라는 라틴어인데, 11~13세기 유럽에서 골리아드라고 불리우는 유랑 승려나 학자, 음유 시인들이 도덕, 사랑, 유희, 종교 및 외설에 관해 노래했던 노래집으로 1803년 독일 바이에른 주의 베네딕트 보이렌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오르프는 이 노래에서 24곡의 가사를 사용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외설적인 가사나 해독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했다. 곡의 중심은 합창에 있으며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독창은 부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두 대의 피아노를 포함한 대규모 타악기 편성을 사용하여 강한 악센트의 합창 리듬을 강조해 주고 있다.

이 곡은 무대 형식의 칸타타라고 할 수 있다. 오르프는 이 작품을 연주할 때 가수는 의상을 입고, 발레로 노래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연출하도록 했는데, 음악만 따로 떼어 연주되기도 한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카툴리 카르미나」「아프로디테의 승리」와 함께 3부작 「트리온피」(승리)의 제1부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오세종이 지휘하는 국립 합창단과 코리안 심포니는 원래 이 작품의 비중이 음악에 주어지고 있음을 일깨워 주기라도 하듯이 거침없는 연주를 들려주었다. 다만 무대 위에서 무용 공연이 전개되는 탓에 합창단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무대 양옆에 배치함으로써 객석의 중앙이 아닌 곳에서는 합창이 메아리처럼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 외에는 훌륭한 연주였다. 중세시대의 유랑 승려의 의상과 무대를 가득 메우면서 지구를 상징한 회전 원형 장치는 청중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국립 발레단과 국립 합창단의 이번 합동 공연은 무용과 음악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창작에도 시도해 볼만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S

외국 TV광고의 사후심의 압력에 대응

한국적 이미지 개발로 우리의 광고문화 보호

임인규·CF감독

최근에 국내 방송광고 심의 결과 중 재밌고도 서글픈 사건(?)이 하나 있었다. 한 음료회사의 광고였는데 그 내용은 남자모델이 소매없는 런닝을 입고 철봉에 매달려 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이 모델이 철봉에 매달린 순간 겨드랑이의 체모가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심의에서 이 장면에 체모가 보기 흉하니 없애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 결국 제작진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실소를 하며 해리(Harry)라는 특수작업을 통해서 사람에게 당연히 있는 체모를 지워야 했다.

이 얘기는 현재 방송광고 심의가 선정성, 폭력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국내 광고들이 이제껏 선정적이라고 지적받은 것을 보면 혹 비뚤어진 사고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었다. 이렇듯 사전심의제의 장점이 과잉되어 우물안 개구리였던 국내 방송광고는 이번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외국 TV광고의 사후심의 압력에 대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우선 사후심의제를 주장하는 미국의 얘기는 이렇다. 자신의 광고들은 정보 누출이나 경비 손실에 대해 피해받을 수 없기에 제작물이 완성된 후에 심의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즉, 사전심의를 하게 될 때에는 줄거리(story board)만을 심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내에서조차 사전심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겐 사후심의 압력을 가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한 가지로 축약된다. 일단 우리의 광고시장을 잠식하고 난 뒤 내년에 유통시장까지 개방되면 우리 나라 경제 전반을 천천히 손에 넣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판단된

다. 지금까지 외국의 개방 압력은 어떤 부분에서도 막을 수 없었고, 그것은 국제화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사후심의가 점차 실시되고 소비자들은 적잖은 정신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국내 기업들과 광고인들 또한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방송 광고시간이 확대된 시점에서 자본력이 강한 외국 기업은 자신들의 광고를 마구 쏟아 부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심의까지 사후에 받을 외국광고는 자국에서처럼 남녀의 섹스어필식 광고나 폭력적인 광고도 별 제재없이 내보낼 것이다. 물론 모든 외국 광고가 천편일률적으로 선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소재일 경우 우리 국민의 문화적 전통에 충격을 줄 화면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미 뮤직비디오, 잡지, 비디오 등을 통해 그들의 생활태도를 접할 수 있었지만 전국 방송을 통한 광고는 그 효과면에서 분명 다르고 강력한 힘이 발휘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 중소기업이나 광고계의 타격은 연계되어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중소기업은 사전심의 형식의 고수단으로 정부가 선보일 프라임 타임대의 고정 광고물 축소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그간 대기업이 주로 광고하던 중요시간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설레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외국 광고에 의해 자본력에서 밀리면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고계의 경우 이미 다국적 광고나 회사에 대해 경쟁이 시작되었지만 제작물에 있어서 만큼은 그들의 과학화나 선진화를 따르는데 고충을 겪고 있다. 그런데 표현마저 대비 기간 없이 사후심의제가 실시된다면 여러면에서 그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마저도 선정 폭력적 광고에 익숙해지고 그에 덕보려 해선 절대 안될 것이다.

이제 물밀듯 닥쳐오는 외국 TV광고의 규제는 어디서부터 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정부가, 광고인과 기업이, 소비자가 먼저 할 수밖에는 없다. 우선 정부는 그들을 협상 테이블에 유도하기 전부터 우리 민족의 특성을 솔직히 전하고 그 결과 어떤 부분은 수용하되 어떤 부분은 양보하라는 식의 연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방송위원회의 대안을 보면 사전심의는 고수하되 정보누출 방지책과 품목 시간대별 안배를 모색한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앞서야 할 것은 국내 광고를 어떻게 함께 규제하고 경쟁력을 길러줄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광고인과 기업들은 외국 광고가 이러하니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me too'전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진 광고와의 경쟁, 선진 제품력과 경쟁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도록 한국적 전법을 고안해야 한다. 특히 광고인들은 현 심의제도 개선의 전제 아래 한국인 정서에 맞는 독특한 크리에이티브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혼혈적 광고에 힘주어선 안된다. 한국인의 광고문화는 바로 우리 한국 광고인이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광고는 결국 그 대상이 소비자이고 결제권자도 소비자이다. 그 누구에 의존해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후진국형 소비자이다. 이제는 소비자 스스로의 판단력으로 광고를 받아들이고, 기업을 받아들이는 선진국형 소비자로 탈바꿈할 바로 그 시기이다.

외국 광고가 선전성 폭력성을 갖고 오는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국의 힘이 더 무섭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S

담당 PD/박광호 이경숙 주영중

방송/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11시 25분

「하이랜더 2」
(High Lander 2)

방송/5월 6일

감독/러셀 멀케이

주연/크리스토퍼 램버트, 버지니아 매드슨, 숀 코네리

크리스토퍼 램버트의 폭넓고 개성있는 연기와 숀 코네리의 중후한 연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과감한 액션과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전편을 압도한다.

혹성 자이스트에서는 독재자 카타나(마이클 아이언사이드)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난다. 반란의 주동자는 맥클라우드(크리스토퍼 램버트)와 라미레즈(숀 코네리). 그러나 자유를 위한 이들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고, 두 사람은 지구로 유배되어진다. 지구에서 이들은 죽을 수 없는 불사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이 잘리는 것 뿐이다. 그리고 지구에서 자이스트 혹성인이 단 한 사람만 남았을 때, 비로소 고향 자이스트로 돌아갈 수 있다.

1994년 지구. 500년 전 유배된 불사신, 맥클라우드는 오존층이 파괴된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5년간의 연구 끝에, 지구표면에 방어막을 설치함으로써 지구는 안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날씨 변화도 없고 하늘도 볼 수 없

으며, 눈이나 비는 구경도 못한다.

그렇게 25년이 지난 2024년.

연구실에서 일하는 여직원 루이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다. 이제 지구의 대기면은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더이상 방어막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방어막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어막 유지 독점회사인 쉴드사가 그 사실을 비밀로 하고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루이스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맥클라우드는 쉴드사의 비밀을 폭로하려 한다.

한편 혹성 자이스트에서는 맥클라우드의 천적 카타나가 그를 없애기 위해 지구로 찾아온다. 맥클라우드는 쉴드사의 사장과 손을 잡고 그를 없애려고 하는 카타나와 죽음의 혈전을 벌이고, 결국 카타나는 무릎을 꿇는다. 맥클라우드는 더이상 쓸모없어진 지구 보호막을 파괴하고, 지구인들에게 맑은 하늘과 공기를 선사한다. 그리고 그는 고향 자이스트 혹성으로 돌아간다. S

햄릿
(Hamlet)

방송/5월 13일
감독/프랑코 제퍼렐리
주연/멜 깁슨

「로미오와 줄리엣」을 제작했던 프랑코 제퍼렐리 감독이 「햄릿」을 현대인의 취향에 맞도록 제작한 작품. 특히 햄릿 역을 액션 스타 멜 깁슨이 맡아

강인하고 활기찬 햄릿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친근감과 재미를 더해준다.

덴마크의 국왕이 죽자 왕의 동생 클로디어스는 전왕의 왕비이자 형수인 거트루드를 아내로 맞이하고 왕위에 오른다. 왕자인 햄릿은 어머니의 성급한 재혼에 충격을 받는데 선왕의 망령이 나타나 자신이 동생에게 독살되었다고 말한다. 햄릿은 망령의 존재를 의심하면서도 왕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국왕 살해 사건을 연극으로 해보인다. 왕이 안색이 변해 일어서자 햄릿은 숙부의 범행에 대한 심증을 굳힌다.

그 뒤부터 실성한 척하며 왕을 죽일 기회를 노리는데 재상인 폴로니우스를 왕으로 오인해 죽이게 된다. 그러자 햄릿을 사랑하던 폴로니우스의 딸 오필리아는 괴로운 나머지 미쳐서 죽게 된다. 왕은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 죽이려 하지만 햄릿은 도중에 되돌아 온다. 폴로니우스의 아들 레어티즈는 왕과 짜고 햄릿을 죽이기 위해 칼에 독을 바른 뒤 왕과 왕비 앞에서 펜싱 경기를 벌인다. 그러나 왕비는 독주에 죽고 국왕과 레어티즈는 햄릿의 칼에 죽는다. 레어티즈의 독 묻은 칼에 찔린 햄릿 역시 왕을 죽인 뒤 숨을 거둔다. S

「블루 선더」
(Blue Thunder)

방송/5월 20일
감독/존 바덤
주연/로이 샤이더

F16 전투기도 격추시키는 최신예 헬리콥터 '블루 선더'의 위력이 돋보이는 경찰 액션 영화.

월남전 참전용사인 경찰항공대 베테랑 조종사 프랭크 머피는 미 공군의 최신예 헬리콥터 블루 선더의 시험 비행사로 선발된다. 미 공군의 블루 선더 책임자는 월남전 때부터 앙숙이었던 코크란 대령. 코크란은 머피가 시험 비행사로 선정된 것이 못마땅해 그를 제거키 위한 음모를 꾸미지만 머피는 코크란과 그 일행이 블루 선더를 이용한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코크란 일행은 그들의 음모가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머피를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덤벼들고, LA 시내의 상공에서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진다. 머피는 F16 전투기를 격추시키고 숙적 코크란이 또다른 블루 선더로 대항해오자 격전 끝에 그를 격추시킨다. 동시에 그들의 음모도 세상에 알려져 일당은 모두 재판을 받게 된다. S

「악령의 퍼스트 파워」
(First Power)

방송/5월 27일
감독/로버트 레스터 코프
주연/루 다이아몬드 필립스, 제프 코브, 트레시 그리피스

경찰 레셀 로간은 15번이나 연쇄 살인사건을 저지른 살인범을 구사일생 끝에 체포하고, 살인범은 재판을 받아 사형당한다.

하지만 살인사건들이 다시 시작된다. 젊고 매력적인 점술가인 테스 시튼은 로건에게 사형 집행된 살인범의 혼이 무고한 사람들의 몸을 점거해 살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로건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동료 경찰이 살해되고, 어떤 정신병자가 10층을 아무 상처없이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결국 죽은 살인범이 복수를 위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사람은 살인범의 다음 표적인 테스 시튼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S

자녀에게 주고 싶은 한마디

"고운 꿈을 너만의 색깔로 아름답게 그려보렴"

"거기 사궁이네죠?" "아닌데요." "슬궁이가 여잔가요? 남잔가요?"
방년 7세의 큰딸 슬함은 이렇게 우왕좌왕 호적신고를 마쳤었다. 이끌 슬(飾)에 꽃봉오리 함(马)을 쓰는 좀 독특한 이름이 사람들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탓이다.
커갈수록 뚜렷이 나타나는 슬함이의 그림에 대한 감각을 키워줄 생각으로 미술 선생님을 소개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미술 선생님께 부탁드린 것은 될 수 있으면 아이의 그림에 영향을 덜 미쳐 달라는 것이었다. 즉, 아이의 그림세계가 펼쳐 보이는 상상력, 꿈, 사랑 그리고 혼돈까지도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해 달라는 뜻을 전했었다. 그러나 슬함은 그림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표현하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고, 소가 소같이 생겨야 되는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그리기를 연습해 갔다. 이상만을 추구한 나의 주장이 미술 선생님의 현실감 앞에서 무너져 버린 셈이었다. 결국은 이것도 슬함이가 크면서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스스로 달래 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따라주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했다. 하지만 슬함아! 너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색깔의 고운 꿈을 잘 간직하여 언젠가는 희망으로 이 세상을 내다보려무나.
아빠가 언제나 너의 뒤에서 따뜻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TV제작국 프로듀서

SBS-TV 주간 기본 편성표

SBS-TV Ch-6

1994년 5월 1일 현재

시	분	월	화	수	목	금
AM 6		출발! 서울의 아침				
8	15	시선집중 오늘				
8	45	아침연속극 행복하고 싶어요				
9	15	알뜰살림 퀴즈				
9	40	SBS 뉴스라인				
5	30	SBS 뉴스				
5	40	세계로! 싱싱싱				우리끼리 또래끼리
6		오즈 탐험대		거북이 특공대		만화극장 (10)
6	25	출동! 마스크		쌍둥이 줄루 줄리		
6	55	오늘의 주요뉴스				
7		가족다큐멘터리 우리집 이야기	대결! 20/40	다큐 미니시리즈 세계의 가정	맞수 TV 최강전	교육현장드라마 공룡선생
8		SBS 8 뉴스				
8	50	SBS 수도권 뉴스				
8	55	월화연속극 세남자 세여자		콘테스트 내가 본 세상	병원 24시	코미디전망대
9	45	SBS 헤드라인 뉴스				
9	50	드라마 스페셜 도깨비가 간다		수목드라마 이 남자가 사는 법		SBS 영화특급
10	50	오늘의 스포츠				
11		스타와 이밤을	연중기획 21세기 신한국의 선택	타임 트래스	시사기획	
11	25					오늘의 스포츠
11	35					금요골프
11	50	SBS 마감 뉴스				
AM 12	50					SBS 마감 뉴스
01:00						

SBS 주말극장
「사랑의 향기」

공인중개사인 명화와 세자녀 영진, 혜진, 동진. 풍요롭지 않은 생활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들에게 각기 다른 빛깔의 사랑이 찾아오고, 상처를 딛고 일어선 중년 남녀의 원숙한 사랑과 젊은이들의 풋풋하고 아름다운 꿈과 사랑이 시청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정길, 김영애, 최진실, 이병헌, 오대규, 전도연 등 초호화 출연진을 토·일요일 밤 8시 50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	분	토	일	분	시
AM 6		토요특집! 좋은 아침입니다	젊은인생		AM 6
6			수도권 현장	45	6
7			SBS 뉴스	10	7
7			일요포럼		7
7			달리는 사람들	50	7
8	15	환경탐사 그린맨을 찾아라			8
8			스포츠특선만화	20	8
8	45	아침 연속극 행복하고 싶어요			8
9			전격 테크노퀴즈	05	9
9	15	휴먼다큐 사랑의 징검다리			9
9	45	SBS 뉴스라인	잠깐 뉴스		9
10		생방송 행복찾기	일요아침극장 질주		10
11			좋은친구들		11
PM 12		SBS 낮 뉴스			PM 12
12	10	SBS 볼링	SBS 일요명화	10	12
1		SBS 화제작 궁합이 맞습니다			1
2		스포츠 중계			2
4		연중기획(재) 세계의 가정(재)			4
4		잠깐 뉴스			4
5		베이사이드 얄개들	생방송 TV 가요 20		5
5	55	기쁜우리 토요일			5
6			열려라! 웃음천국		6
7		웃으며 삽시다	순간포착 당신이 특종		7
8		SBS 8 뉴스			8
8	40	오늘의 스포츠		40	8
8	50	SBS 주말극장 사랑의 향기		50	8
9	50	그것이 알고싶다	박봉숙 변호사	50	9
10	50	SBS 헤드라인 뉴스		50	10
10	55	신 형사 콜롬보	스타와 이밤을	55	10
11			SBS 바둑최강전	55	11
AM 12	40	TV를 말한다			AM 12

SBS 라디오 주간 기본 편성표

SBS AM 792 KHzHLSQ

1994년 5월 1일 현재

시	분	월~토 (뉴스)	월~토	일	일 (뉴스)	분	시
AM 5			뉴스	뉴스			AM 5
	05		마음은 언제나 청춘 · 진행/신용철 이소영 · 연출/정태익	마음은 언제나 청춘		05	
6			뉴스	뉴스			6
	05		기상정보	권오근의 출발 성공시대		05	
	30		뉴스				
			권오근의 출발 성공시대 · 연출/박성원				
7			아침종합뉴스	아침종합뉴스			7
				세계를 보자		10	
	15		세계를 보자 · 연출/김동운	이해성의 세계음악 · 연출/심진연		15	
	20		김종찬의 서울 전망대 · 연출/이영일				
8		· 15분, 45분 쿼터뉴스					8
				작은 사람 큰 이야기		30	
	50		공항 정보				
	55		녹색시대 · 연출/이정은	녹색시대		55	
9			이계진·변순복의 정보 매거진 · 연출/박동주	이계진·변순복의 정보 매거진			9
10							10
11			조경철의 지구촌 24시 · 연출/김상일	조경철의 지구촌 24시			11
PM 12	20	정오종합뉴스	진미령의 가요쇼 · 연출/이진규	진미령의 가요쇼	정오종합뉴스	10	PM 12
1							1
2			박세민·김지선의 신나는 오후 2시 · 연출/김국은	박세민·김지선의 신나는 오후 2시			2
3		· 매시 15, 45분 쿼터뉴스 · 매시 정각, 30분에 뉴스					3
4			김창남의 트롯 대행진 · 연출/김동운	김창남의 트롯 대행진			4
5							5
6	20	저녁종합뉴스	송경철·최영임의 서울 전망대 · 연출/전윤표	이미자의 가요앨범	저녁종합뉴스	10	6
7							7
8	30	SBS 8 뉴스 TV동시 방송	서울 정도 600년 기획 – 서울이야기 · 진행/김태훈 · 연출/박성원	서울 정도 600년 기획 – 서울이야기	SBS 8 뉴스 TV동시 방송	30	8
9			임국희의 달빛노래 · 연출/이재춘	임국희의 달빛노래			9
10		· 매시 정각 30분에 뉴스	윤종신의 기쁜 우리 젊은 날 · 연출/김광태	윤종신의 기쁜 우리 젊은 날	· 매시 정각에 뉴스		10
11							11
AM 12		뉴스			뉴스		AM 12
	5		남경주의 밤이 흐르는 곳에 · 연출/신형철	남경주의 밤이 흐르는 곳에		5	
1							1

마침내 멀티미디어 시대!

금성은, 멀티미디어 시대를 미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금성이 하이미디어로 앞서갑니다

TV, 컴퓨터, 팩시밀리, 전화, AV 등을
따로따로 쓰지 않고도 멀티미디어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세상.
멀티미디어 화면으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
만나고 집에 앉아 회사일을 보고 영화와
연극을 감상하고 쇼핑을 즐기게 되는 세상.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꿈의 테크놀러지를
금성은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이미디어"

하이미디어 기술이란?

금성의 독보적 기술영역인 하이미디어
(HiMEDIA) 기술은 멀티미디어,
대화형미디어, 뉴미디어를 모두 일컫는
최첨단 미디어기술입니다.
하이미디어는 TV, 컴퓨터, 전화,
AV등이 하나로 통합되는새로운
매체입니다. 하이미디어로 세계는
동시생활권이 되고 진정한 의미의
고도정보화사회가 완성됩니다.

GoldStar

금성 •가전미디어 CU •산전 CU •정보통신 CU •일렉트론 CU •방산 CU •전선 CU •엘지미디어